

LOG

록,
기록하다

곳 자 알





LOG

곶자왈

Vol.1 2019

1979년 한라산 중산간 지대의 황무지를 무농약 녹차밭으로 일구며, 제주의 자연과 교감해온 이니스프리. 청정 자연에서 찾은 가장 제주다운 원료로 이니스프리 제품을 만들 듯 이니스프리의 진정성을 바탕에 두고 기록하는 제주의 자연, 이제 「LOG」로 공유한다. 섬이 생성될 때 흐르는 용암으로 태어난 크고 작은 암괴 지대에 형성된 숲으로, 해발 500~600m 이하 저지대에 조성되어 있음에도 무성한 수풀 탓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지금껏 원형을 간직할 수 있었던, 제주가 간직한 자연스러운 장소이자 가장 독보적인 생태계. 층층이 쌓인 바위 틈새는 물과 공기를 품어 온갖 식물이 자라게 하고, 전국 최고 강수량을 보유한 제주의 다량의 빗물을 지하수로 연결하는 통로이자, 빗물이 지하로 흐르는 구멍인 '숨골'을 품은 제주의 깊은 속내, 꽃자왈. 제주 전체 면적의 6%에 불과하나 중산간과 해안 사이에 분포해 접근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개발의 유혹이 가장 큰 곳이라는 것 또한 꽃자왈이 처한 현실이다.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원형을 잃어가는 숲,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쪼개지며 망가지는 땅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꽃자왈 역시 생태와 경관이 살아 있고, 원초의 상태와 기능이 변하지 않을 때 그 의미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LOG」는 꽃자왈에 지극한 애정을 드러내는 시선, 숲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과 동식물 이야기, 예술의 영감이 된 꽃자왈의 정경을 기록한 책이다. 더불어 이니스프리가 오래도록 지키고 나누고픈 제주다움, '꽃자왈'에 대한 이니스프리의 첫 번째 기록이자 헌사다.



사진 원영재

Contents

			<u>Interview</u>	배우 윤진서의 너에게 제주의 숲을 보낸다	36
				그들이 숲으로 간 까닭	64
				너무 좋은 것도, 너무 싫은 것도 없이, 삐꼴리쿠치나 신혜원과 강길수 숲이라는 액티비티, 촬영감독 김동연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느낌, 싱어송라이터 강아슬 한 폭의 짙은 풍경화, 화가 김현수 숲속 마을에 안긴 사물의 공간, 오브젝트 선홍점	
<u>Feature</u>	꽃자왈, 너의 이름은	30			
	꽃자왈에 살아요	62			
	꽃자왈을 소유하는 완벽한 방법, Forest Sharing	82			
<u>Scene</u>	포토그래퍼 장민승의 제주 풍경 너머, Over There	12			
	Forest Photograph Collection	14	<u>Artwork</u>	소맥우화	6
	필름에 담긴 꽃자왈 모먼트, 원영재			숲의 조각들	44
	무성한 틈새를 무심하게, 안수연			사라진 숲의 밤	54
	방해하고 싶지 않아, 김병준			꽃자왈 모습, 꽃자왈 살롱	96
<u>Essay</u>	소설가 최민석의 새벽 숲	60		일러스트레이터 오시영의 숲에 부는 여린 바람	100
<u>Column</u>	이니스프리의 이런 자연주의 #Be Green Again	50	<u>How To</u>	꽃자왈 러너스 가이드	88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의 새 공간, Organic Architecture	90		그린 생활 백서	94



燒麥寓話

소맥
우화

초록이 가득한 프레임 안으로 무언가가 뛰어 들었다. 사진가 조남홍이 포착한 제주 숲의 풍경과 숨은 '소맥' 찾기.







Artist's Note

2015년이였다. 반려견 소맥이와 미국을 일주했다. 풍경을 담을 생각으로 사진 장비를 챙겨 갔다. 바다를 찍기 위해 세팅해둔 프레임 안으로 갑자기 소맥이가 뛰어 들었다. 소맥이는 시원하게 불일을 봤다. 프레임에 끼어든 의도치 않은 피사체가 주는 이질감이 좋아 작업 방향을 바꿔 이듬해 <Landscape Interrupted>라는 전시를 했다. 여전히 소맥이와 종종 여행하고, 사진을 찍는다.

조남홍

뉴욕 파슨스 스쿨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오래된 기억과 꿈의 이미지를 정적인 흑백 필름 사진으로 표현한다. 패션 필름과 개인 작업을 병행하다 2017년 귀국해 제주에 정착했다. 현재 성산에서 작은 바를 운영하며 사진 작업을 이어간다. 작가는 바다에서 서핑을, 소맥이는 인적 드문 중산간에서 자유로운 산책을 즐기며 각자 제주의 자연을 앙갓 누리고 있다.

Over There

〈Over There〉에는 내러티브 없이 제주의 물과 눈, 바람이 담겨 있다. 잔잔하고 고요하게 제주의 진짜 모습에 가닿는 작가 장민승의 시선이기도 하다. 촬영을 위해 한번 한라산에 오르면 일주일가량 머물렀다는 그는 겨울엔 혹독한 눈보라와 맞섰고, 여름엔 식수를 비롯해 무거운 짐을 지고 이동하기가 예사였다. 이 과정은 작가가 끊임없이 분투한 끝에 이겨낸 결과이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풍경 너머의 제주를 고집스럽게 담아낸 시간의 기록이다.

장민승

작가는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Over There〉를 선보였으며, 2015년부터 1000일 동안 한라산을 오가며 작업했다. 인물도 대사도 자막도 없이 자신이 만난 우주를 담은 영화로,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지원으로 만들어졌다.



Photo by Minseung Jang

장민승, 꽃자왈, 〈over there〉,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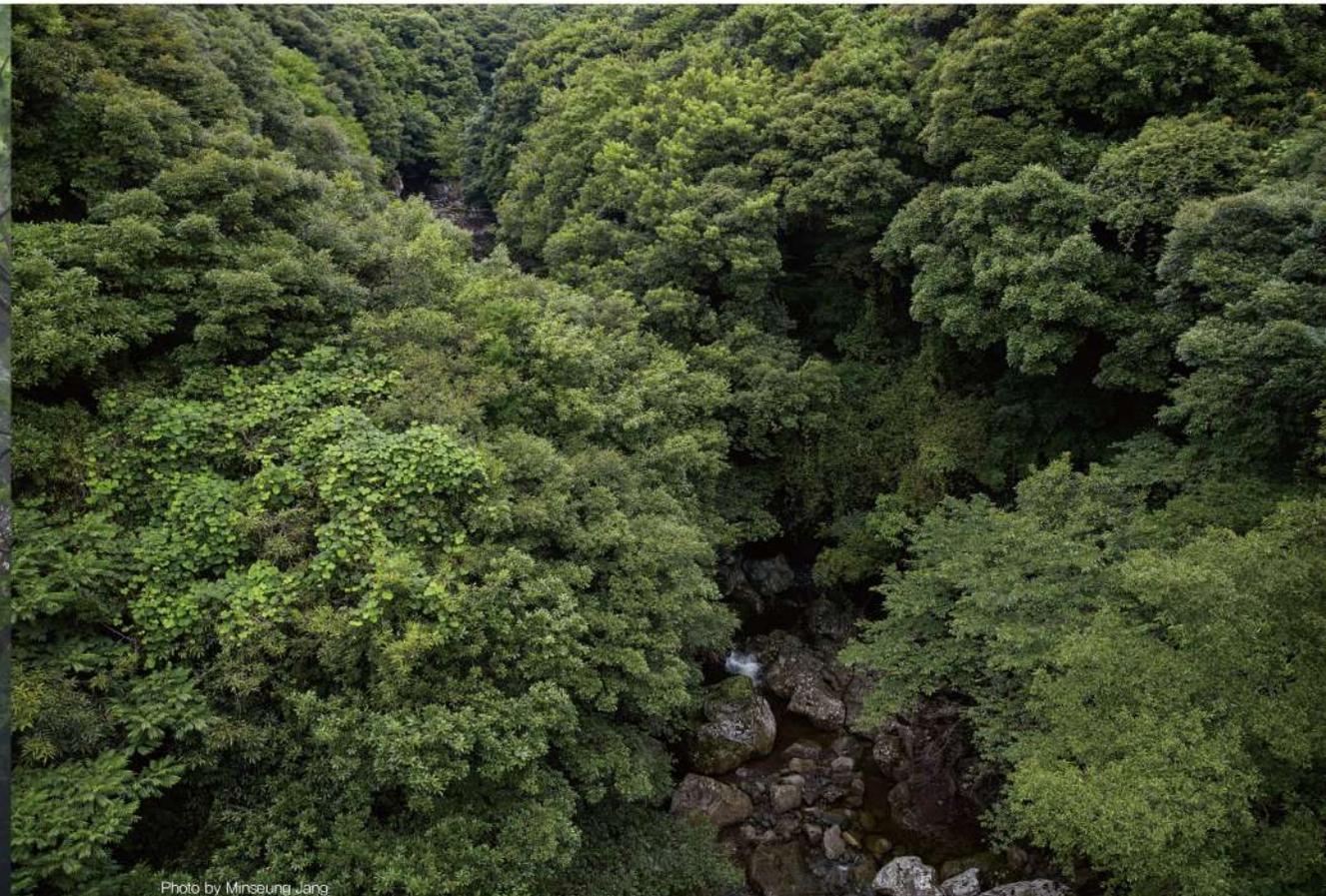


Photo by Minseung Jang

장민승, 계곡, 〈over there〉, 2018

Forest Photograph Collection

무성한 숲의 빛을 응시하는 3명의 사진가가 있다. 바람과 들이 빛은 섬의 숨결이자
작가의 아틀리에가 된 '꽃자왈'에서 이어간 그들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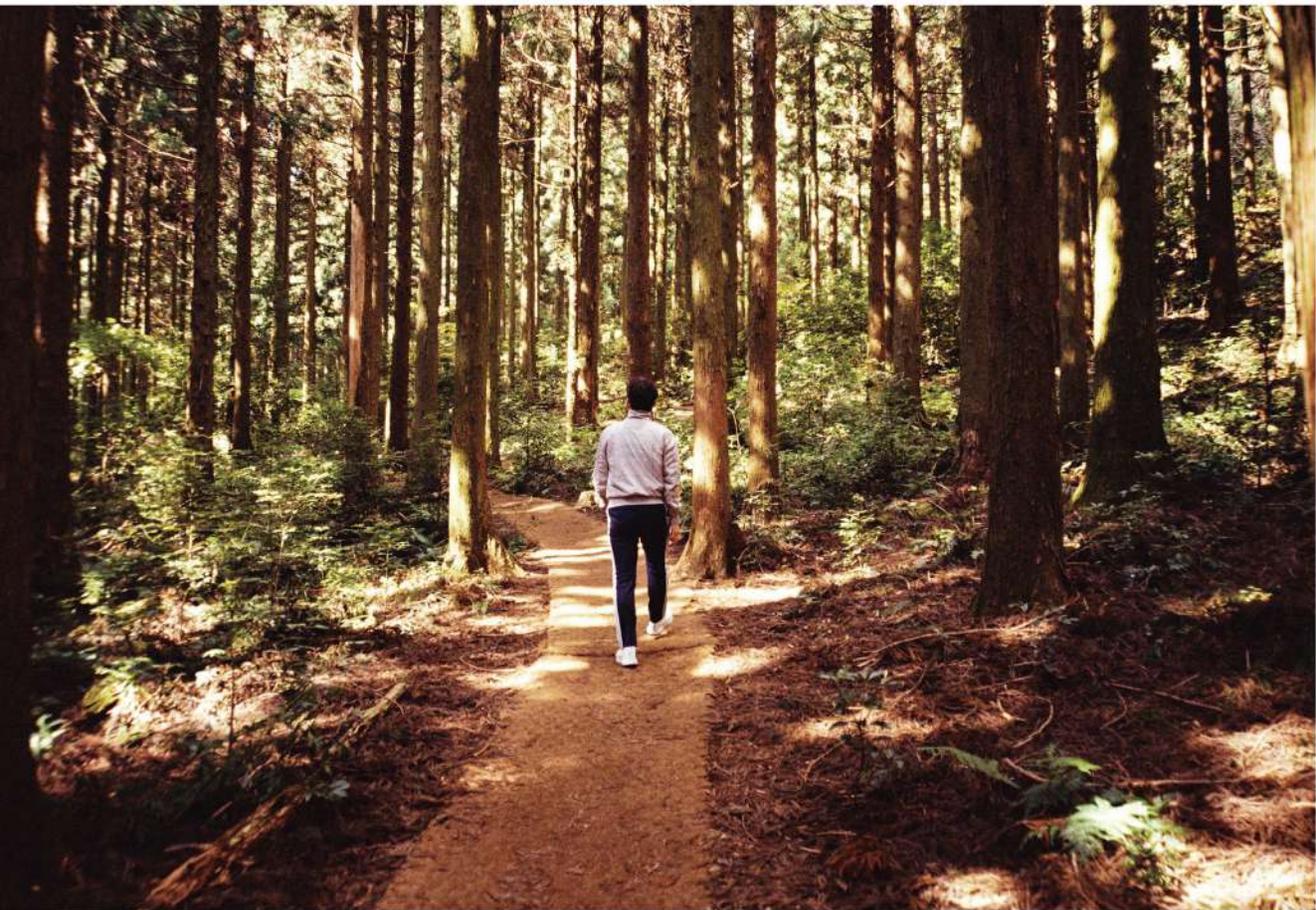
1

필름에 담긴 꽃자왈 모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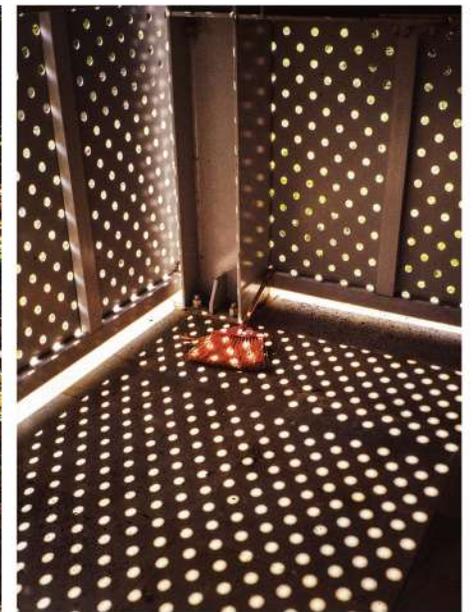
원영재

필름 사진으로 꽃자왈을 기록하는 원영재는 자신의 20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경험과 시간은 모두 제주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진가다. 최근 펴낸 사진집 <Jeju Island>에 제주에 대한 애정을 망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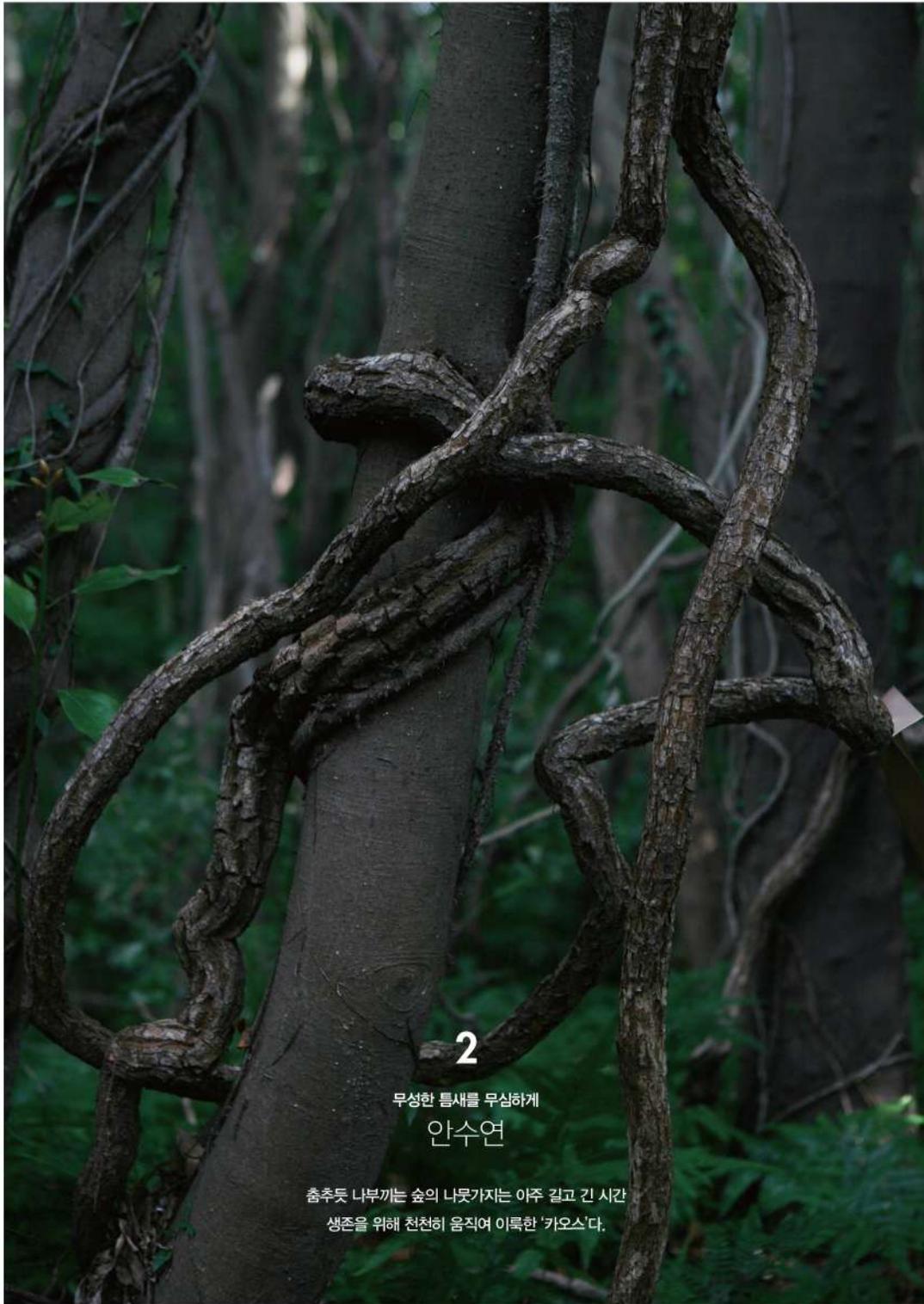




8년 전, 자전거를 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안 도로를 따라 4박 5일간 섬을 돌았습니다. 오른쪽에는 바다를, 왼쪽에는 한라산을 두고 달리던 순간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때의 벅찬 감정 덕분에 제주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 꽃자왈을 찾은 것은 2018년입니다. 비지림, 사려니숲길 같은 제주의 자연을 느끼고 싶어서 찾아보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연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제주에 갈 때마다 찾아갑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꽃자왈에 가는 시간을 계획합니다. 지금, 제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집고 들어오고,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숲을 가득 채우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그때를 상상하니, 벌써 그립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쓰기 시작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주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섯 종류의 카메라를 썼고, 필름 수는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았지만 50롤 정도, 사진 수는 적어도 1000장



은 넘을 겁니다. 제주를 필름 사진으로 남긴 이유는 혼자서만 간직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제주를 여행하며 경험한 이야기와 시선을 엮어 사진집 《Jeju Island》를 펴냈습니다. 책을 만드는 동안 제주에 대한 시선과 감정에 솔직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나'의 기준에 맞춰 작업했습니다. 곧 타이포그래피와 북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로 갑니다. 가을이 지나면 한국 나이로 서른 살이 되는데, 유학을 앞두고 지난날을 돌아보니 지금의 나를 만든 중요한 경험과 시간은 모두 제주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의 '나'로 성장하기까지 제주에 많이 의지했다는 것도요. 제주가 저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장소가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제주에 의지하고 싶습니다.



2

무성한 틈새를 무심하게

안수연

쭈뼛듯 나무끼는 숲의 나뭇가지는 아주 길고 긴 시간
생존을 위해 천천히 움직여 이룩한 '카오스'다.







뉴욕에 머물다가 오른쪽 눈 망막이 파열되어 수술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으로 임시 귀국했습니다. 그때 제주에 실 검 놀 검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제주라는 존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꽃자왈을 인상적으로 만난 것도 그때예요. 제주의 자연에서 폭 쉬었기 때문인지 망막은 더 이상 파열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주의 첫인상은 '치유'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진가가 되어 도쿄에서 뉴욕, 뉴욕에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에서 제주로 이주한 모든 여정의 이유는 결국 '사진'이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꽃자왈'은 만나고 난 뒤 가끔 꿈에 나올 정도로 그리운 곳이었어요. 결국 숲 가까이에서 작업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 제주로 옮겨 왔습니다. 꽃자왈 나뭇가지가 '엉켜 있는' 모습이 카오스로 다가왔고, 단순하게 비주얼의 독특함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숲을 들여다보니 그 '엉킴'에는 생존을 위해 천천히 움직였을 아주 오랜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빛을 쫓아 나뭇가지를 옮긴 움직임과 방향, 그 무수한 흔적의 집합체랄까요. 엉킴의 이유, 생존의 구조, 그들만의 언어 등이 쌓여 탄생한 꽃자왈은 서사가 있을 테고요. 저는 그 서사, 이야기를 사진에 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주는 곧 '현재'입니다. 비 온 다음 날, 혹은 비가 내리고 있는 숲이 참 좋습니다. 비 때문에 짙어지는 나무의 향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감정을 불러옵니다. 오래된 나무가 비를 맞고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꼭 사진을 찍지 않아도요.



3

방해하고 싶지 않아

김병준

여행가 겸 사진가 김병준은 여러 해 동안 세계 각국을 여행하다가 지난해 제주에 정착했다. 그리고 제주의 지역을 주제로 한 사진 작업에 한창이다. 그 시작은 그의 말처럼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야생의 숲 지대 '남원' 프로젝트다.





지난해부터 제주 남쪽의 남원읍을 주제로 숲과 오름, 바다 등 가리지 않고 촬영하고 있어요. 매일 오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숲에 머물러요. 카페 로빙화와 숙소 시류객잔 운영을 맡고 있는데, 출근 전에 주어지는 자유 시간을 맘껏 쓰는 거죠. 새벽 무렵 숲의 찬 공기가 일출과 함께 순식간에 더워지면 그 온도 차로 말미암은 드라마틱한 빛 내림의 순간을 포착해요. 그날의 풍경과 분위기를 담는 거죠. 숲에서 노루, 말, 소 등 동물과 촬영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동물의 공간에서 사진 좀 찍겠다고 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니 거리를 두고 촬영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꽃자왈의 소를 찍은 사진은 자주 가는 숲 근처 축사에서 나온 소 떼가 숲에 들어온 순간을 촬영한 거예요. 한번 간 곳에 또 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숲은 못해도 100번은 다녀왔어요. 가보면 별이 드는 각도, 빛이 내리는 모양과 결이 같을 때가 없어요. 숲은 이런 작은 변화를 살피는 눈을 밝혀주고, 에너지를 보태주는 곳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숲이 건강한 기운을 불어넣는다고 믿어요. 그곳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스스로를 멈출 줄 모르는 바람이라고 여겼어요. 10년, 20년은 여행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제주에 있어요. 멈춘 바람이 되고 보니 다른 사람들이 바람이 되어 제게 오더군요. 이전 바람을 기다리는 맛에 살아요. 제주 작업은 10월에 오픈하는 사진 창고 겸 문화 공간 '조아가지구'와 내년 상반기 발행하는 포토 에세이를 통해 지속될 겁니다.

○ 꽃자왈, 너의 이름은

꽃자왈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기 전까지, 꽃자왈은 다만 하나의 덩굴숲에 지나지 않았다. 들무더기 위에 뿌리내린 숲은 토양이 부족하고 울퉁불퉁한 데다 불도 잘 붙지 않아 개간이 어려웠다. 쓸모없는 땅이라 여겨졌던 꽃자왈이 지하수의 원천이자 생태계의 보고로 인정받기 시작한 지는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꽃자왈이라 불리기 전에도 제주 사람들은 이 덩굴숲 가까이에서 살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었다. 8개의 키워드로 들여다보는 아주 오래된 꽃자왈과 제주 사람들의 숲과 더불어 사는 생활.



©제주관광공사

● 꽃+자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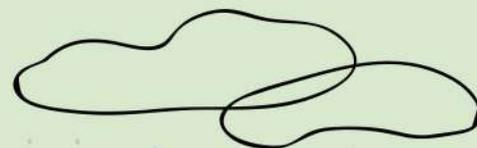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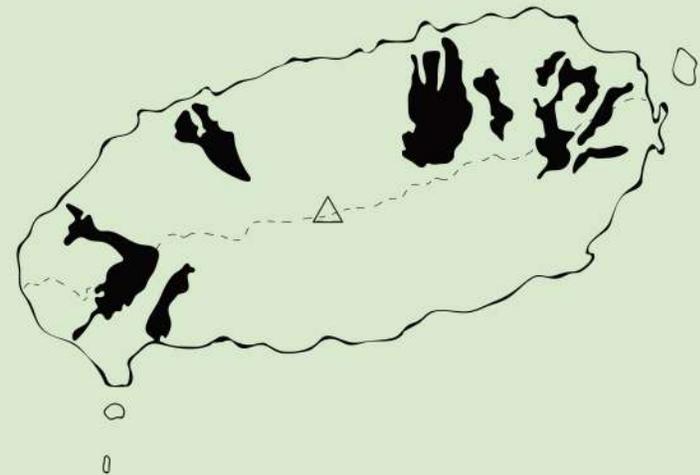
요즘 꽃자왈을 찾는 이들은 꽃자왈이 무엇인지 알고 찾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제주 사람들조차 꽃자왈이 뭔지 잘 몰랐다. 꽃, 고지, 자왈, 자왈 같은 말은 일찍이 존재했다. 꽃 또는 고지는 한라산 아래 중산간에 펼쳐진 숲을 의미했다. 자왈과 자왈은 나무와 넝쿨이 마구 엉클어진 덩굴 지대다. 그 둘을 합쳐 덩굴숲이란 의미로 '꽃자왈'이란 단어를 썼지만, 특정한 지질구조를 보이는 지대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다. '뒷산'처럼 마을 인근에 덩굴이 우거진 깊은 숲을 의미하는 정도였달까.

● 꽃자왈 대탐사

꽃자왈의 의미가 지금처럼 확정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제주의 지하수를 연구하던 송시태 박사가 꽃자왈 근처 마을에서는 홍수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 덩굴숲이 빗물을 빨아들여 지하수로 내려보내는 핵심적인 장소임을 밝혀냈다. 한라산의 다른 숲과 달리 용암이 굳어 생긴 암고(바윗덩어리) 위에 뿌리내린 숲이라는 형성 원리와 구조도 일렸다. 송시태 박사의 논문을 본 제주 지역 일간지 제민일보의 편집국장은 2002년 꽃자왈 탐사 보도를 제안했다. 지질학자와 식물학자, 언론인이 팀을 꾸려 덩굴을 헤치고 꽃자왈 깊이 들어가 대탐사를 진행했다. 쓸모없는 땅이라 여겨져 연구되지 않았던 꽃자왈에서는 이제껏 제주에서 발견된 적 없는 온갖 생물이 그들만의 생태계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 2년 동안 이어진 제민일보의 꽃자왈 대탐사 보도는 수많은 후속 연구를 끌어냈으며, 제주 사람들에게 꽃자왈이란 단어를 각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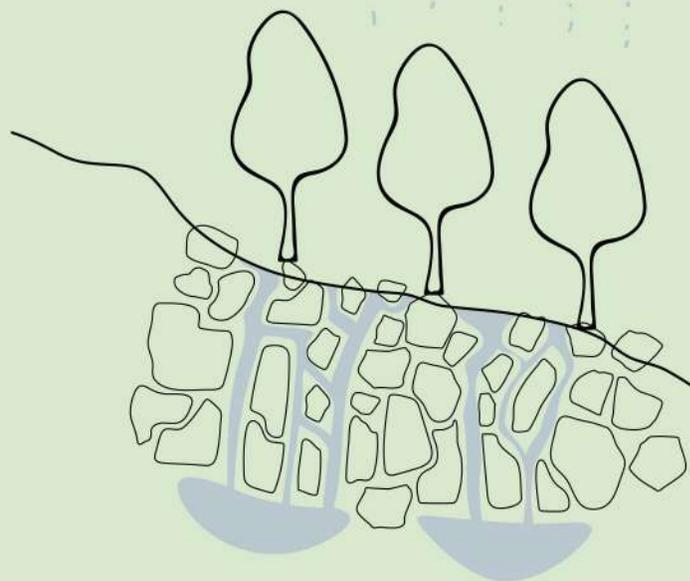
● 6.1%

꽃자왈은 용암이 흘러내린 띠를 따라 분포한다. 중산간의 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은 바다를 향해 흐르다 굳기에, 꽃자왈은 섬 남쪽이나 북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제주 동서쪽에 분포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꽃자왈로 볼 것인지 아직 논쟁 중이지만, 2003년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한 지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제주 면적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109.86km²가 꽃자왈 면적이다. 조사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다. 송시태 박사는 꽃자왈을 조천-함덕, 구좌-성산, 애월, 한경-안덕 등 크게 4개 지대로 구분한다.



● 수다(水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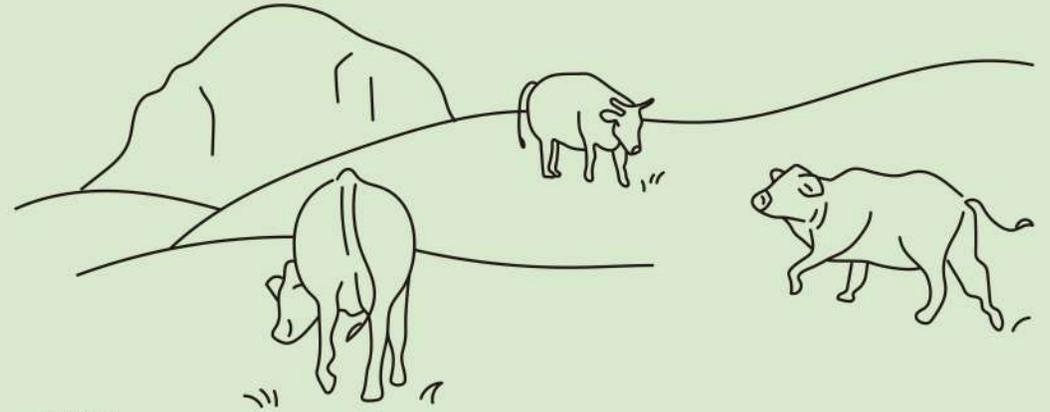
용암이 굳어 생긴 암고 위에 숲이 우거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보통 식물은 흠에 뿌리를 내린다. 꽃자왈의 풀과 나무는 척박한 돌 틈을 파고들었다. 이는 우선 이들의 생명력이 아주 강하며, 긴 세월을 걸쳐 생태계를 구성했음을 의미한다. 그다음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꽃자왈의 지질구조다. 커다란 암석도 식물의 뿌리가 움켜쥐고 긴 시간에 걸쳐 뺏아가면 금이 가고 부서진다. 꽃자왈 지대의 지질은 이렇게 형성된 거대한 자갈밭이다. 커다란 돌과 부서져 형성된 작은 돌이 열기설기 쌓여 있는데, 스펀지처럼 틈이 많아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도 빗물을 모두 흡수한다. 꽃자왈로 흘러든 물은 서서히 땅속으로 내려가 지하수가 된다. 걸로 봐선 알 수 없지만, 구조를 들여다보면 속 깊고 물 많은 수다(水多)의 숲인 셈이다. 물 귀한 제주에서 사람들의 생명수 역할을 한 용천수나 제주의 스테디셀러 '삼다수'는 모두 꽃자왈에 크게 기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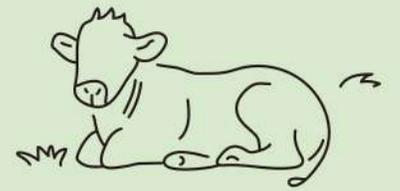
● 숯굴

규모가 큰 꽃자왈에서는 어김없이 '숯굴'이 발견된다. 현무암과 흙을 아치형으로 쌓아 만든 이 가마에서 제주 사람들은 나무로 숯을 구웠다. 명절이나 제사처럼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고급 연료여서, 구운 숯을 시장에 팔면 돈이 됐다. 산림 당국의 단속이 심할 때는 몰래 굽느라 연기가 잘 보이지 않는 안개 낀 날이나 흐린 날을 골라 작업했다고 한다. 석탄과 석유가 주 연료로 자리 잡으며 1980년대 이후 숯굴에서 숯을 굽는 모습은 점차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느티나무, 구실잣밤나무, 빗나무, 솔비나무, 윤노리나무, 조록나무 등 다양한 나무가 어우러진 꽃자왈은 숯의 생산처일 뿐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목재 창고였다. 사람들은 꽃자왈의 나무로 빨감을 마련하고, 세간과 농기구를 만들었으며, 집의 뼈대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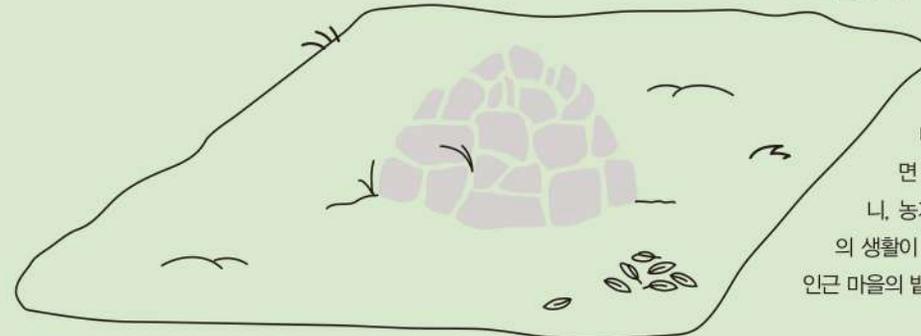
● 꽃치기

돌담이 구불구불 흐르고 낮은 관목이 파랗게 덮인 언덕에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다. 가끔 돌담을 넘은 소가 차도까지 진출하는 이곳은 '화순 꽃자왈'이다. 숲이면서 농장을 방불케 하는 이색적인 풍광 덕에 입소문을 타고 찾는 이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실제로 제주 사람들이 꽃자왈을 이용하던 오랜 방식을 볼 수 있다. 꽃자왈에서 마소를 기르는 것을 '꽃치기', 꽃자왈에서 자란 말과 소는 각각 '꽃말', '꽃쇠'라 한다. 가축이 다쳐서는 안 되니 상대적으로 평탄하고 덜 거친 꽃자왈을 개간해 사용했다. 지하 20m 깊이까지 켜켜이 쌓인 암괴로 이루어진 꽃자왈은 땅이 간직한 지열이 바위틈으로 올라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다. 겨울에도 축사 없이 실외에 방목했던 가축들은 꽃자왈의 온기로 추위를 견뎠다.



● 머들

농경지로 쓰기 어려울 정도로 거칠고 척박한 꽃자왈이지만, 제주 사람들은 이보다 더 강했다. 꽃자왈에서도 마땅한 땅을 기어다 찾아내 농사를 지었던 것이다. 자갈 입자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부분적으로 토양이 형성된 곳은 어김없이 개간 대상이 됐다. 밭을 길며 나온 큰 돌로 담을 쌓고, 나무뿌리는 견어내 농토로 만들었다. 돌이 어찌나 많았는지 담까지 옮길 수 없는 것은 밭 가운데 무더기로 쌓았는데, 그 돌무더기를 '머들'이라 부른다. 이렇게 힘겹게 개간하고도 불과 몇 년이면 지력이 떨어져 다른 밭을 찾아야 했다고 하니, 농기계와 화학비료가 없던 시절 제주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고됐을지 짐작된다. 지금도 꽃자왈 인근 마을의 밭에서는 머들을 볼 수 있다.



너에게 제주의 숲을 보낸다

살뜰히 가꾼 숲속 정원에
상상한 별이 들자, 윤진서가
싱긋 웃어 보인다.





— 어떻게 제주로 오게 됐나요?

서핑하며 남편을 만났어요. 둘이 도시에서는 살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고,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어요. 전주, 경주를 비롯해 남편 고향인 포항도 가봤죠. 그러다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있고, 겨울에도 따뜻한 제주로 오게 됐어요. 이주한 지 3년 반 정도 됐는데, 중문 바다에서 서핑하고 정원도 가꾸며 지내요.

— 서핑을 즐겨 바닷가에 자리 잡을 줄 알았는데, 숲속에 집터를 마련한 게 의외예요.

바다와 서핑을 좋아하니 오히려 바다의 무서움을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닷가는 집터로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바닷가가 아니면서 마을도 아닌 한적한 곳을 찾다가 중산간에 위치한 이곳을 발견했어요. 주위에 사람이 없었으면 했거든요. 꼭 넓은 정원을 꾸리고 싶었고요.

— 숲에서의 삶은 어때요?

지인들이 "큰 도시에서 살던 네가 시골살이를 하면 지루할 거야"라고 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숲으로 들어가기 전엔 무서울 순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적응했는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더 큰 정원을 가꿔보고 싶거든요. 지금 정원이 300평(991㎡) 정도인데, 나중에는 1만 평(33,000㎡) 정도 되는 정원을 가꾸고 싶어요. 나만의 산책로도 만들고요. 할머니가 되어서도 매일 정원을 가꾸며 살아가는 게 꿈이에요.

— 열심히 가꾼 정원 자랑 좀 해주세요.

사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요. 다음 계절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정원을 보살피죠. 돌담 주위로 벚꽃나무, 팽나무, 하귤나무, 배롱나무, 동백나무 등을 배치했고, 여러해살이 풀과 한해살이식물을 놓았어요. 로즈메리, 라벤더, 캐머마일 등 허브류는 요리할 때 사용하거나, 바삭 말려 스머지 스틱으로 써요. 초봄에 캐머마일 꽃이 정원을 뒤덮을 만큼 가득 피는데, 겨우내 언 땅을 뚫고 힘을 내 올라온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 정원을 손질할 땐 어떤 생각을 하나요?

정원을 가꾸다 보면 모기에 뜯기고 땀에 절기 일쑤예요. 잡초가 많이 올라오는 시기에는 거의 1시간 정도 명상하듯 잡초를 뽑아요. 그러면서 계속 되뇌어요. '내 삶의 잡초를 뽑듯, 정원의 잡초를 뽑아야지' 하면서요.(웃음)

— 하루는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요.

파도가 있는 날과 없는 날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요. 전날 밤에 물때표를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거든요. 파도가 드는 날엔 오전 5~6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파도가 없는 날엔 오전 7~8시쯤에 일어나죠. 서핑하고 와서는 아침을 차려 먹고, 정원 일을 해요. 요가 수업이 있는 날엔 수강생을 가르치고, 없는 날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본 후 개인 수련을 해요.

— 바깥체에 요가 스튜디오를 냈더군요.

지인 혹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수련하는 곳이어서 사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공간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 1~2명을 가르쳤는데, 그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가 또 친구를 데려오는 식으로 점점 인원이 늘어나 2년 정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야외 요가를 하고 싶어서 작은 공간을 마련했어요.

— 요가를 가르치는 건 어때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니 더 많이 찾아보게 되고, 몸으로 아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니 공부 가 돼요. 요가를 통해 서로의 에너지가 오가는 게 정말 좋아요. 일상에 활력소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요가 스케줄을 짜요. 수련을 위해 저도 다른 선생님에게 배우러 다니거든요. 오래전부터 필라테스와 요가를 배워온 터라 자격증을 많이 따긴 했지만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마스터를 보면 아직 배울 게 한없이 많고, 끊임없이 수련해야겠다는 걸 느껴요.

— 수련하며 깨닫는 바도 많겠죠.

아사나를 하면 같은 형태의 것도 매일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내 육체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일이니 그날그날 제 컨디션을 파악할 수 있어요. 호흡 수련을 할 때는 제 마인드를 들여다보게 돼요. 내가 편안할 때와 긴장될 때 호흡이 얼마나 다른지 매번 느껴요. 호흡 수련은 하면 할수록 정신과 가까워지는 길을 찾는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나를 자각하게 되고, 유아무아 파악하려 했던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돼요. 어딘가로 깊이 빨려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더 깊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온전히 나 자신을 잡고 있는 느낌이라 좋아요. 깊은 숲속에 살며 수련을 하다 보니, 그전까지는 뭔가를 보여주려고 싶었던 면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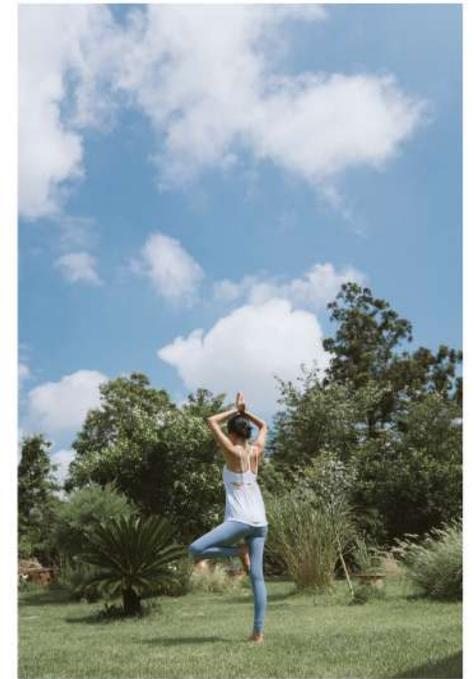
윤진서가 알려주는 숲에서의 쉼



● 호흡법

자신의 심장과 중요 부위에 손을 대고 호흡하면 형클어졌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숲이 빚어내는 자연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숨을 내쉬어보자. 나무 자세에서 호흡을 취하거나,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호흡을 취해도 좋다.

- 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정면을 바라본다.
- ② 오른쪽 손바닥은 심장에, 왼쪽 손바닥은 아랫배에 댄다.
- ③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일정한 속도로 내쉰다.



● 나무 자세

온전히 내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모이다. 미세한 발목의 움직임 느끼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살짝살짝 움직이며 몸의 중심을 찾아보자.

- ①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오른 발바닥을 왼쪽 허벅지 안쪽에 갖다 댄다. 동작이 무리라면, 발목 위에 올려도 좋다.
- ② 오른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린다. 반대편 무릎 관절이 옆으로 밀리지 않게 허리를 곧추세운다. 이때 척추나 골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주의한다.
- ③ 하늘에서 정수리를 당기듯 허리와 어깨를 똑바로 세우고, 발은 땅에 뿌리내리듯 아래로 지그시 눌러 무게감을 나눈다.
- ④ 균형을 잡은 다음, 두 손바닥을 가슴 앞에 모으고 팔꿈치는 하늘을 향해 뻗는다. 모은 두 손을 허리 뒤로 넘기거나 팔을 모아 하늘 위로 쭉 뻗어보자. 힘들면 두 팔을 양옆으로 펼쳐도 좋다.
- ⑤ 중심을 잘 잡았다면 눈을 감은 상태로 버티며, 몸의 감각을 느낀다.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편 근육을 당겨 밸런스를 맞춘다. 되도록 묵묵한 나무처럼 오래 버티볼 것.

숲의 조각들

반듯한 수영장에 제주 풍경 한 조각이 고고하게 깃들었다. 화가 양화선이 그려낸 선연한 고향 숲의 한 조각이다.



A Safe Zone - nowhere, Acrylic and Gouache on Canvas, 53x46.5cm, 2019



A Safe Zone - nowhere, Acrylic on Canvas, 90x160cm, 2016



A Safe Zone - nowhere, Acrylic and Gouache on Canvas, 72,5x53cm, 2019



A Safe Zone - nowhere, Acrylic on Canvas, 40,5x30,5cm, 2016



A Safe Zone 1, Acrylic on Canvas, 165 x 165cm, 2013

Artist's Note

A Safe Zone - no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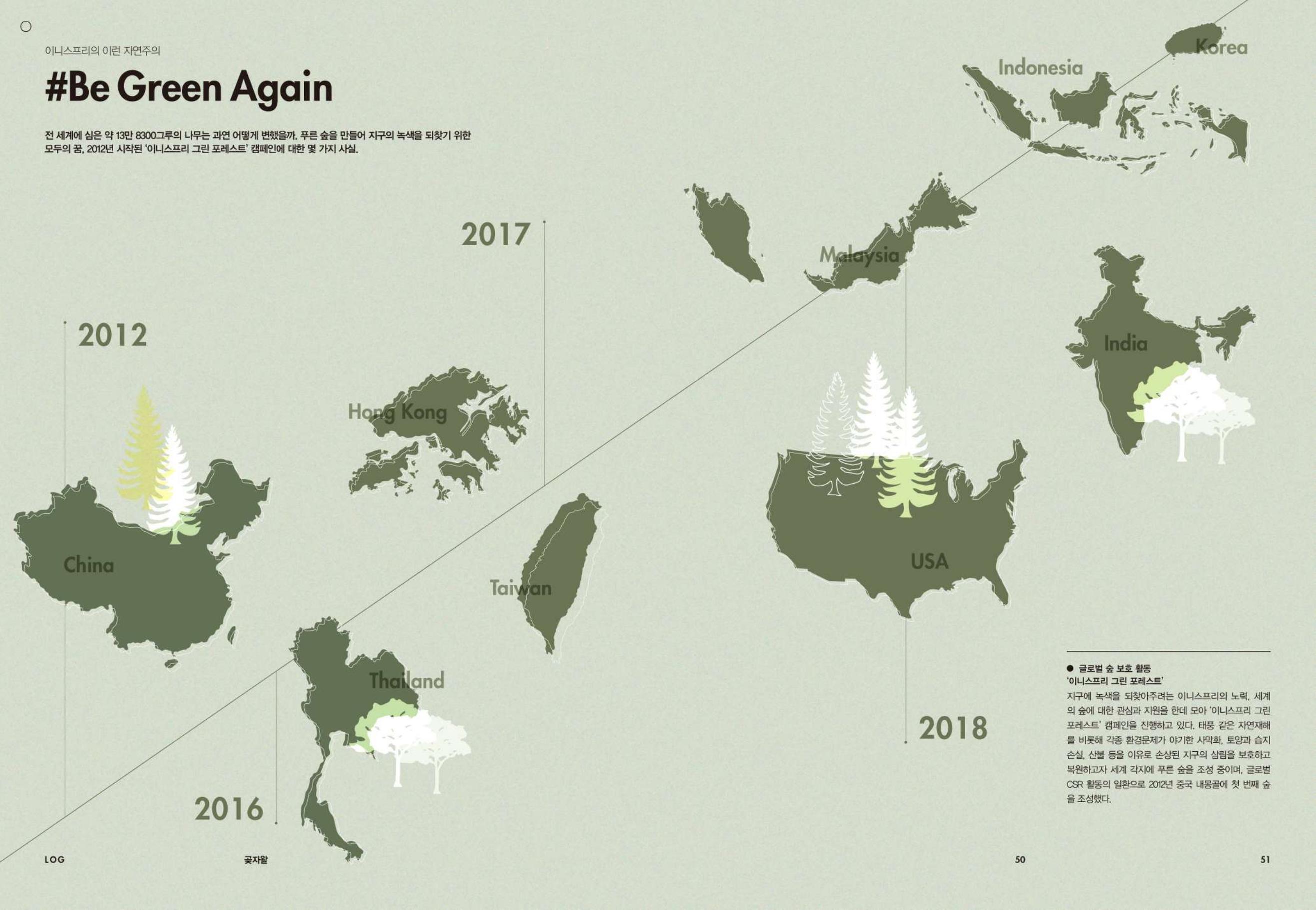
화가 양화선이 꾸준히 선보이는 '안전지대는 없다(A Safe Zone - nowhere)' 시리즈는 화가가 도심 속 파라다이스로 여기는 수영장의 단면을 담는다. 런던 생활 초반, 막막할 때마다 수영장을 찾았다. 생각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내주었기에 화가 자신에게 수영장은 곧 안전지대였다. 하지만 물을 두려워하는 친구를 보며 누군가에게는 불편함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공간일 수 있음을 깨닫고, 수영장의 모순된 성격을 캔버스에 담았다. 양화선이 풀어낸 수영장은 단조롭고 웅숭깊다. 제주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바다와 하늘의 색채며, 오브제처럼 등장하는 고사리와 숙대낭(삼나무), 아트막한 산등성이가 제주의 한 조각처럼 빠죽 얼굴을 내민다. 어린 시절부터 밝은 다채로운 제주의 빛을 따는 숲, 높고 새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 서귀포 할아버지 댁에 있는 싱그러운 굴밭, 깨끗한 계곡 등 고향의 자연이 드러내는 색감의 폭은 그토록 넓었다. 그렇게 빛을 내는 요소들과 마주했고, 이는 자연스레 화가 양화선의 그림에 녹아들었다.

양화선

제주에서 나고 자란 양화선은 현재 영국 런던에서 작품 활동 중이다.

#Be Green Again

전 세계에 심은 약 13만 8300그루의 나무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푸른 숲을 만들어 지구의 녹색을 되찾기 위한 모두의 꿈, 2012년 시작된 '이니스프리 그린 포레스트' 캠페인에 대한 몇 가지 사실.



2012

2017

2018

2016

● 글로벌 숲 보호 활동
'이니스프리 그린 포레스트'

지구에 녹색을 되찾아주려는 이니스프리의 노력, 세계의 숲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한데 모아 '이니스프리 그린 포레스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각종 환경문제가 야기한 사막화, 토양과 습지 손실, 산불 등을 이유로 손상된 지구의 삼림을 보호하고 복원하고자 세계 각지에 푸른 숲을 조성 중이며, 글로벌 CSR 활동의 일환으로 2012년 중국 내몽골에 첫 번째 숲을 조성했다.

85500 그루

1 중국 내몽골 쿠룬치 사막 사막화 방지

2012년 중국 내몽골 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나무 심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중국과 한국의 소비자와 함께 1만 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계속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8만 5500그루를 심었다. 이니스프리의 대표적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으로 꼽힌다.

2 태국 맹그로브 숲 만들기

2016년 6월 태국 방푸 지역에 조성된 맹그로브 숲은 바다와 육지가 인접한 곳에 조성되어 파도로 인한 토양 유실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의 산란과 은신을 돕는 장소로 가능하며, 해양 생태계 유지에 도움을 준다. 이니스프리는 태국 소비자와 함께 방푸 지역의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맹그로브 나무 3000그루를 심었다.

12000 그루

3 홍콩 팽차우 섬의 생태계를 위한 꿈, 세어 그린

팽차우섬은 2009년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숲이 소실돼 나무뿐만 아니라 새나 벌 등 다양한 생물종이 사라지며 생태계가 손상됐다. 이니스프리는 2016년부터 팽차우 섬 내 약 9300m² 면적에 매년 2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여러 동식물이 다시 생태계를 일궈갈 수 있도록 회복을 돕고 있다.

7000 그루

4 타이완 타이마리 '이니스프리 숲' 조성

타이완의 타이마리 해안은 매년 불어닥치는 태풍과 북동계 절풍으로 해안가 모래 유실이 잦은 지역이다. 이 해안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니스프리는 2017년부터 2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했다.

20000 그루

5 말레이시아 이탄 습지와 라자 무사 숲

말레이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숲 조성 활동은 2017년 시작되었다. 이탄 습지와 라자 무사 숲(Raja Musa Forest)이 그 주인공. 매년 600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환경을 돌보는 동시에 습지가 환경에 주는 이로운 점을 알리고 있다. 앞으로 숲 조성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6 미국 클레머스 국립림 복원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생한 각종 화재로 손상된 미국 캘리포니아 클레머스 국립림(Klamath National Forest)을 복원하기 위해 2018년 6월, 이니스프리는 5000그루를 식재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최대 나무 심기 비영리단체 '아버데이 재단(Arbor Day Foundation)'이 동행했다.

1800 그루

7 인도 반수르에 나무 심기

인도 라자스탄 내 반수르(Bansur) 지역은 높은 온도와 극심한 건조로 조림(造林)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다. 지역 농가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이니스프리는 2018년 인도의 나무 심기 NGO인 신칼프 타루(Sankalp Taru)와 함께 1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5000 그루

9 숲속의 제주 만들기 ·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올해 이니스프리 모음재단과 제주시,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도시 숲 가꾸기의 일환으로, 제주 삼우공원에 면나무 200여 그루를 심고, 공원 내 숲과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은 2015년 이니스프리가 설립한 공익 재단으로, 제주와 자연과 문화, 인재를 위한 다양한 공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38300 그루

Total

1000 그루

8 인도네시아 보고르 숲의 능력치 키우기

인도네시아 보고르 지역의 무기는 거의 대부분 홍수가 끊이지 않는다. 이니스프리는 세계자연보호기금 인도네시아(WWF Indonesia)와 함께 이 지역의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해 6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보고르의 이니스프리 숲을 위한 식재는 올해도 계속된다.

5000 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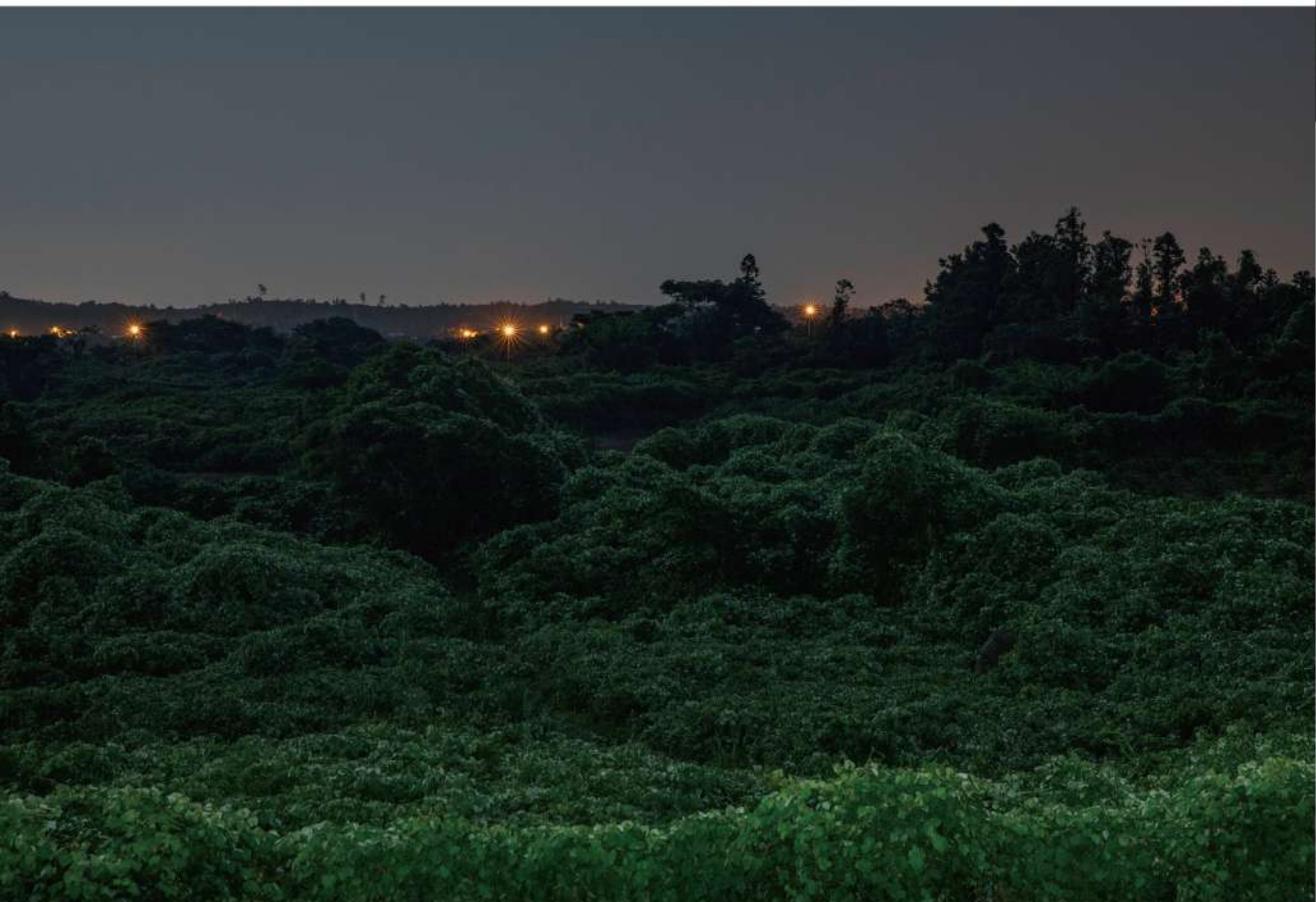
6000 그루



사라진 숲의 밤

숲이 있던 자리에 커다란 산이 들어섰다. 20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인 쓰레기가 산을 이루었다. 이곳에도 달빛이 내려앉고, 식물이 자라고, 시간은 흐른다. 사진작가 이다슬이 포착한 사라진 숲의 밤.







Hold Me Tight. Episode 1

모든 것이 낯설다. 온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이곳의 풍경은 다가오는 모든 것을 날카롭게 경계하는 모습이다. 나무숲을 들여다보기 위해 비춘 불빛은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발가벗겨 비추는 듯하다. 이 순간만큼은 수없이 이곳에 왔던 나도 한낱 이방인이다. 나뭇잎과 꽃잎이 날이 바짝 선 칼끝처럼 작은 바람에도 예민하게 움직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조심스레 숨 쉬는 것뿐이다. 숲이 있던 자리에 커다란 산이 들어섰다. 20년간 천천히 쌓아 올렸다는 산은 멀리서 잘 보이지 않는다. 보름달이 떠야 가까이서나마 희미하게 볼 수 있다. 낯선 이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주위에 심어놓은 동백나무와 울타리는 넝쿨로 덮였다. 희미한 달빛을 따라 걸어 들어가니 달빛에 반짝이는 산의 모습이 보인다. 산은 온갖 쓰레기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기이하게도 폐기물 사이로 다양한 식물이 자라 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 산을 작은 오름으로 착각할 정도다. 정상까지 난 길을 따라 올라가니 서서히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과 한 약속과는 달리, 쓰레기는 여전히 쌓아 올려지고 있었다. 멀리 밤바다가 보였다. 환한 밤바다가 아주 황홀하게 나를 유혹한다.

1년 만에 이곳 풍경은 변해버렸다. 정확히는 사라져버렸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내가 알고 지내온 모든 것이 사라졌다. 도토리나무와 삼나무도, 구불구불 자라던 소나무 한 그루도, 이곳저곳 흐드러지게 피던 산수국도 없다. 나를 맞이하던 풀잎 소리도, 작은 벌레들의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대신 자동차가 다니는 시멘트 자갈길이 났다. 커다란 나무들은 잔해가 되어 쌓여 있다. 바람이라도 일면 벌써 시멘트 먼지가 숲이 있던 자리를 가득 메운다. 안개가 자욱한 지금의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달은 구름에 가렸고, 앞이 보이는 않는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하다. 누군가 멀리서 코노래를 흥얼대며 이곳을 향해 오는 것 같다. 몸을 바짝 엮드리고 이 순간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이다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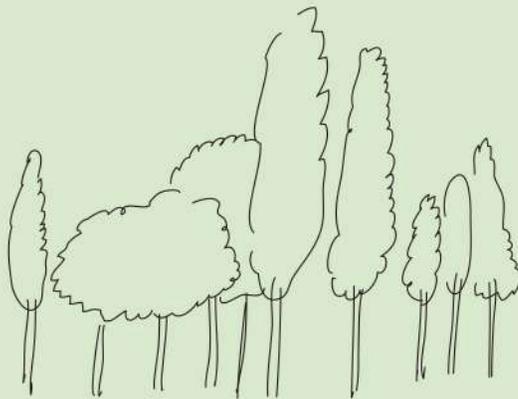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매체미술을 전공했다. 서로 이질적인 이미지가 한 프레임 안에 공존할 때 느끼는 신비로움과 불편함을 담는다. 쓰레기 더미에서 자라난 꽃, 기후변화로 기존 식생을 뒤덮은 덩굴식물, 방치된 호텔을 점령한 담쟁이, 산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양봉으로 급증한 벌들 등 사람 때문에 변해버린 제주의 풍경을 포착한다.

새벽 숲



눈을 뜨면 커피를 한 잔 내린 후, 그 커피를 들고 책상으로 향한다. 책상 위에는 전날 만족스럽게 마친 원고가 저장된 노트북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뒤로는 거대한 숲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클래식 음악과 함께 숲이 가져다 주는 신록의 풍경 속에서 하루 치 원고를 쓴다. 여기까지가 작가가 되기 전에 내가 상상한 소설가의 아침이었다. 하지만 정작 나의 아침은 졸린 눈을 비비며, 과연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나아가 지금이 몇 년인지, 몇 세기인지조차 헷갈릴 만큼 무거운 머리로 도시의 아파트에서 일어나 네 살짜리 아이를 깨우고 웃을 입힌다. 작가가 되기 전에는 숲속의 새들이 나를 맞이하며 아침을 시작할 거라 상상했지만, 정작 내가 맞이하는 첫 소리는 "아빠 싫어! 저리 가!"다. 무슨 영문인지 네 살짜리 남자아이들 대부분은 치킨과 유튜브를 빼곤 세상의 모든 존재를 싫어한다. 이렇듯 내가 품었던 환상과 내가 접한 현실의 간극의 커질 때마다, 나는 숲으로 간다. 우선은 매일 한강변을 달린다. 난지 한강공원을 지나 가양대교까지 가면 숲길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곳을 매일 걷고 달리다 보면 숨통을 틔워줄 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배경이자 한 부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가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모든 욕구를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최적의 장소는 제주도다. 당연한 말이지만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숲이 있다. 숲에 관해서 좀 더 말하자면, 나는 많고 많은 숲 중에 '자연휴양림'을 좋아한다. 이곳에는 숙박 시설이 있기에 원한다면 잘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원칙상 그렇다. 무슨 말이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숙소이기에 다른 곳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시설은 괜찮은 편이라 숙소 예약이 거의 '월드 스타 내한 공연 티켓팅'만큼이나 치열하다. 나를 대신해 예약해 준 지인의 표현에 따르면 흔히 말하는 '클릭질'을 프로그래머만큼이나 빠른 손짓으로 해아만 방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지인의 헌신적인 '클릭질' 덕인지, 신의 가호의 덕인지, 자연휴양림에 숙박할 호사를 누린 적이 있다. 고작 값싼 방에서 잔 게 무슨 호사냐고? 나는 지금 숲속의 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휴양림 입구로 들어서서 순간부터 거대한 숲이 포옹하듯 반겨준다. 아침 도착한 날은 보슬비가 내려, 숲에 안개가 자욱이 껴다.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나무들 사이로 낮게 깔린 희薄的한 안개를 헤치며 걸어가는 순간,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내 몸과 영혼에 달라붙은 도시의 때가 씻겨나가고, 거대한 자연이 뿜어내는 신비한 기운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이런 숲의 기운이 너무나 반가워 창과 발코니 문을 열어놓고 잤다. 그 탓에 새벽 5시의 한기가 나를 흔들어 깨웠는데, 그 흔들림은 나쁘지 않았다. 덕분에 새벽 이슬에 젖은 자연휴양림의 진면모를 볼 수 있었으니.

사실 나를 깨운 것은 한기만이 아니었다. 약속이나 했다는 듯 일제히 울리는 새들의 노랫소리도 한몫했다. 고개를 드니 어두웠던 숲을 서서히 밝히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이슬에 젖은 숲속엔 그 해가 선사하는 핀 조명 같은 한줄기 빛이 비쳤고, 이런 풍경 속에 새들은 목청껏 노래하고 있었다. 새벽의 숲에서는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고, 발걸음 역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숲이 하루를 시작하는 리추얼이구나' 하는 감탄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이 숲속에 발을 디딘 이방인으로서, 최대한 그 숲속에 녹아들기를 원했다. 그래서 누군가 지금 이 정경을 그린다면, 나는 그 그림 속에서 뛰는 유일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안개처럼 존재감이 흐릿해지더라도, 땅 위에 부서지는 햇빛처럼 존재감이 사라지더라도, 그저 숲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렇게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까지, 2시간을 걸었다. 한줄기로 강렬하게 쏟아 내리던 햇빛은 어느새 숲 전체를 밝혔고, 지축을 흔들 만큼 울어대던 새들의 아침 공연도 어느덧 막을 내렸다. '미스트'를 얼굴에 뿌리는 듯 마음까지 촉촉하게 했던 새벽의 습기도 차츰 말라가고 있었다. 마침내 숲은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완전히 마쳤다. 이날 나는 평소보다 훨씬 적게 잤지만, 어느 때보다 충만한 하루를 보냈다. 그 숲에 다녀온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회색의 빌딩숲 속에서 건조한 인사를 주고받으며, 웃음마저 건조하게 건네받을 때면 아직도 그 숲속에서 시작한 아침이 때때로 나를 촉촉하게 적셔준다. 보슬비가 내릴 때면 더욱 그리워지는 그 숲속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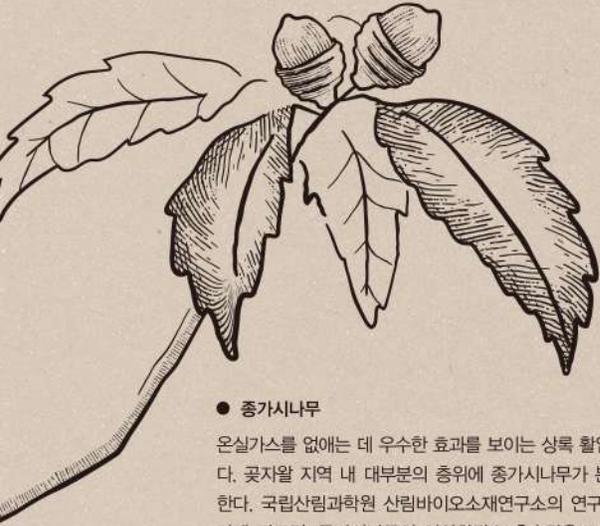


최민석

소설가. 장편소설 <능력자>와 소설집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 에세이 <고민과 소설가>, <베를린 일기> 등을 썼다. 작가 외에 록 밴드 '시와 바람'의 보컬로도 활동 중이며, 한라산 등반 후 마시는 제주산 핑크 막걸리를 '애정'한다.

꽃자왈에 살아요

꽃자왈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동식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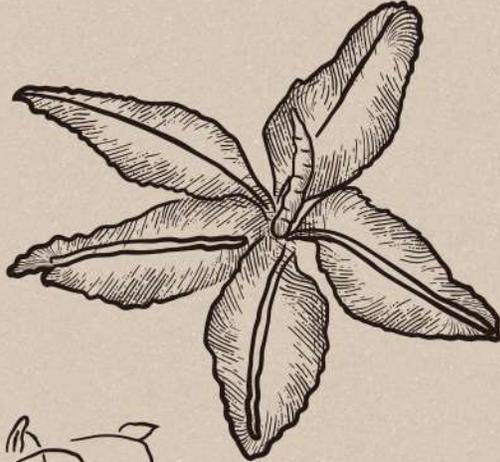


● 종가시나무

온실가스를 없애는 데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상록 활엽수다. 꽃자왈 지역 내 대부분의 층위에 종가시나무가 분포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가시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1ha당 (약 1,400본) 연간 18.13톤이다. 이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을 2.4톤으로 산정했을 때, 약 8대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셈이다.

● 제주고사리삼

한국 특산종인 제주산 양치식물로, 원시 고사리 형태를 띤다. 꽃자왈에서 유일하게 자생하는 여러해살이풀이며 저지대의 습지에서 자란다. 환경부 멸종위기 보호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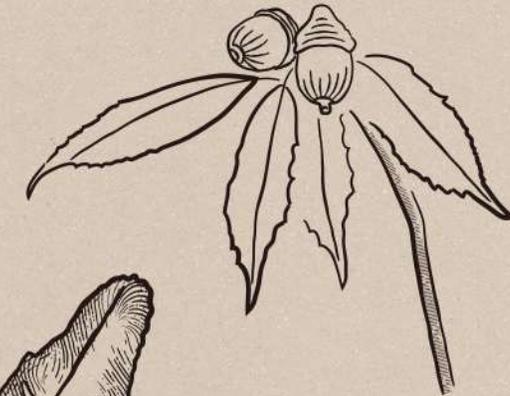


● 개가시나무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 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국내에서는 오직 제주 꽃자왈을 중심으로 서식한다. 식물 생육 북방한계선이 가장 남쪽에 위치한 만큼 추위에 약하다. 매우 제한적으로 분포하는데, 해발 100~300m 이하의 중산간 지역 꽃자왈에서 서식한다.

● 방울꽃

국내에서는 제주가 유일한 자생지이며, 제주에서는 꽃자왈이 대표적인 서식지다. 해발 200~500m의 숲속 혹은 물가 그늘에서 자라는데, 상대적으로 지형이 높고 다소 건조한 곳에 보금자리를 튼다. 개화는 숲속 식물 가운데 가장 늦은 9월경 연한 자주색 꽃을 피운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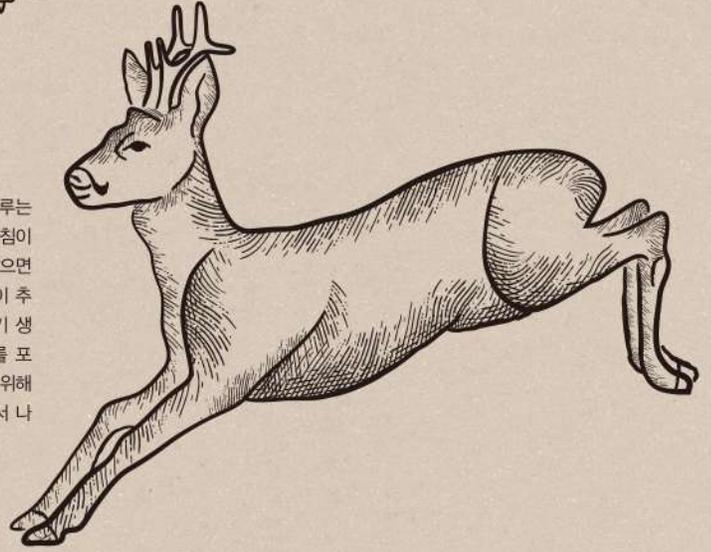
● 빌레나무

미세 먼지 농도를 낮추고 실내 공기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충북대학교 연구진(박봉주 교수)이 1년 5개월의 연구 끝에 실내 공기 환경 개선에 우수한 자생식물로 선정했다. 빌레나무는 2003년 제주 꽃자왈에서 처음 채집됐다. 제주 남서쪽 해발 120~160m의 숲 가장자리에서 자란다. 제주에서 자생하는 보호종이라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다.



● 노루

우리나라 전역의 산림 지대에서 주로 생활하는 노루는 꽃자왈에서 서식하는 포유류 중 가장 크다. 이른 아침이나 해 질 녘에 활동하고, 겨울에도 바람이 심하지 않으면 양지보단 음지에서 지낸다. 2012년 국립산림과학원이 추진한 꽃자왈 내 문화 유적 발굴 조사에서 '조선 후기 생활 유적 집단 시설'이 대량 발견됐는데, 그중 노루를 포획하기 위해 만든 '노루랑'이 발견됐다. 노루 사냥을 위해 1~2m 정도 땅을 파 돌담을 쌓은 함정으로, 제주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사냥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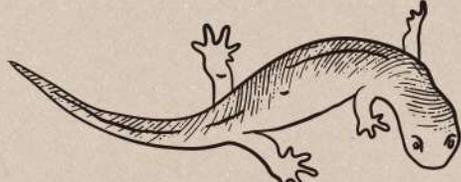


● 제주백서향

꽃받침통에 털이 없고 잎은 대개 긴 타원형이며, 꽃송이가 많이 달리는 점에서 일반 백서향과 다르다. 난대림이 형성된 꽃자왈에서 분포한다. 숲의 가장자리 중 습도 유지가 원활하고 충분히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서 자란다.

● 제주등줄쥐

꽃자왈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포유류다. 제주에서 서식하는 붉은 쥐의 일종으로, 등이 붉은빛 나는 갈색을 띤다. 농경지, 황무지, 산 중턱, 산 정상과 산밑 등 습하지 않은 곳이면 어디든 살 수 있다. 1년에 네 번 새끼를 낳으며, 한 번에 낳는 새끼 수는 6~8마리다.



● 제주도롱뇽

지리적 변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 일반 도롱뇽과는 구분된다. 제주에서 발견되는 도롱뇽의 한 종류로, 꽃자왈 같은 습한 산림에서 서식한다. 피부는 갈색으로 얼룩져 있고, 몸통과 발가락이 길며 머리는 납작하다. 개체 수가 줄고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

● 긴꼬리딱새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여름새로, 주로 남부의 섬 지역에서만 여름을 난다. 오직 꽃자왈에서 볼 수 있는 희귀 조류다.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일본식 명칭인 삼광조(三光鳥)로 불렸으나, 수컷의 꼬리가 암컷보다 3배 이상 긴 특징을 반영해 긴꼬리딱새로 고쳐 부른다.



그들이 숲으로 간 까닭

그들의 장소는 때로 그들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꽃자왈을 품은 제주를 고향으로 두었거나, 숨골 깊은 마을에 뿌리내리거나, 숲과 더불어 개성 넘치는 작업물을 선보이는 다섯 크리에이터가 말하는 숲 이야기.



너무 좋은 것도, 너무 싫은 것도 없이
삐꼴라쿠치나 신혜원, 강길수

숲속의 작은 서양 식당 삐꼴라쿠치나를 운영하는 신혜원과 강길수에게 숲은 일상이다. 매일 숲을 걸으며, 하고 싶은 일과 살고 싶은 삶에 대해 생각한다.

- **삐콜라쿠치나는 해안이나 마을이 아니라 꽤 깊은 중산간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두 분은 숲을 좋아할 것 같아요.**

신혜원 레스토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어스름한 시간, 나무가 우거진 숲에 오두막이 있어요. 창문으로 오렌지색 빛이 흘러나오죠. 이런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공간을 찾았어요. 사실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 정도에서 타협했어요.

강갑수 숲을 좋아해서 서울에서도 숲과 가깝게 지냈어요. 등산을 자주 갔거든요. 제주에 오고는 틈만 나면 숲으로 가요. 식당 뒤가 숲이에요. 접이식 테이블과 식기를 챙겨서 강아지 데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와요.

- **최근에는 '숲속 피크닉' 프로그램을 시작했더라고요.**

신 둘이서 죽 식당을 운영해왔고, 당분간 휴식기를 갖기로 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보려고요. 숲속 피크닉은 그중 하나예요. 피크닉 세트를 대여하는 형태가 아닌, 야외에서 음식과 차, 피크닉 용품을 챙겨서 손님들과 피크닉을 같이 즐기는 거예요. 농장이나 오름에서의 다이닝, 숲 프러포즈도 시도하고 싶어요. 앞으로 제주의 자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늘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숲 피크닉처럼 제주의 자연에서 즐기는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해요.

- **숲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나요?**

강 차를 즐기는 것이 일상이어서 숲에서 내려 마시고요. 책을 읽거나 걸어요. 숲에서는 무얼 하든 좋아요. 가만히 있거나 해도 소리가 다르니까요.

신 바다에 가면 신나서 들뜨게 되고, 숲에 가면 한없이 차분해져요. 사람들을 만나서 말하거나 일하다 보면 상기되잖아요. 그조차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숲에 가면 그 모든 행위에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었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참 편안해요.

- **바다보다 숲에서 보내는 시간이 휴식의 의미에 좀 더 가까운 걸까요?**

신 다른 방식의 심이죠. 요즘에는 어떤 것이 더 진짜라거나, 뭐가 정말 좋다거나 하는 식으로 단정 지어 말하는 것을 경계하려 해요.

강 어떤 일이든 여러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을이 무척 아름답지만, 태풍의 전조일 수 있듯, 한 면을 보고 너무 좋다 혹은 싫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제주 생활로 얻은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신 숲에서 이런 생각을 주로 하게 돼요. 너무 좋은 것도 없고, 너무 싫은 것도 없이 그렇게 살려고요.





2

숲이라는 액티비티 촬영감독 김동언

영상 작업자이자 유튜브 어니언TV 채널지기 김동언은 지난해 지인들과 커피 자루를 챙겨 가 숲과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담아 왔다. 자유롭게 평화롭게 달리게 해준 숲길에 보답하는 그이다운 방식이었다.

— **본업인 영상 제작만큼 산악자전거와 캠핑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분, 맞죠?**

제주의 출판사에서 영상과 사진 관련 일을 합니다. 제주의 산과 숲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캠핑으로 자연을 즐기고 있고, 틈틈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하기도 하죠. 자전거를 산까지 싣고 가서 타고 오는 과정이 꽤 번거로워서 맘처럼 자주 타진 못해요. 그래도 일주일에 네댓 번은 안장에 오르죠. 또 있군요, 출퇴근 시간. 제주 시내 도로 사정이 지옥 같아서 자전거 만한 이동 수단이 없거든요.

— **산악자전거는 언제부터 탄 거예요? 바로 숲길이나 산길을 달렸을지도 궁금해요.**

8년 전부터 픽스드기어 자전거를 탔어요. 그 후 로드사이클을 거쳐 산악자전거에 입문했고, 산악자전거를 탄 지는 3년쯤 됐어요. 도로에서 사이클을 탈 때만 해도 지금처럼 산길을 다닐 줄은 몰랐죠. 절친한 라이딩 동료가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한번 산에서 같이 타보자고 속삭인 게 시작이었습니다. 라이딩 나가서는 넘어지고 구르고 고생까나 했지만, 1시간 남짓 경험한 뒤론 앞으로 자전거 탈 때는 무조건 산으로 간다고 결심하게 됐죠.

—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경험한 잊지 못할 일화를 들려주세요.

눈 쌓인 산속에서 조난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매번 다니던 길이라고 방심했던 것 같아요. 눈이 쌓이거나 잡초가 무성한 길은 행적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길을 잃고 패닉에 빠질 수 있어요. 휴대전화 GPS마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더더욱요. 팁을 드리자면, 그럴 땐 갖고 있는 음식과 물을 섭취하세요. 공황 상태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만일에 대비해 남은 음식과 물은 아껴두고요. 그리고 주변의 높은 지대로 올라가세요. 제주의 오름 대부분 정상에선 신호가 잡혀요. 지도 앱으로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내려오거나, 구조 요청 전화를 걸면 됩니다.

— 스틸을 감수하면서 즐기는 숲길 라이딩의 묘미는 뭘까요?

사이클을 타면 주로 공도를 달리는데,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운전자와 신경전을 벌이곤 하죠. 배기가스나 소음에 시달리기 일쑤고요. 숲이나 산으로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자유롭게 평화롭죠. 힘들면 어디에서건 쉬고요. 이따금 딱따구리가 나무에 구멍을 내는 모습이나 희귀한 버섯을 구경하고, 산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멧돼지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죠. 이 모든 풍경이 계절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 라이딩하기에 좋은 숲의 계절, 숲의 시간은 언제인가요?

봄과 가을을 좋아합니다. 땀이 덜 나고, 여름이나 겨울에 비해 길 상태가 라이딩에 더 적합하거든요. 숲에서 나무 사이사이로 빛이 비치는 풍경을 보노라면 가끔 제주가 아닌 곳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날이 쌀쌀하다 싶으면 커피를 내려 마시거나 간식을 먹습니다. 요즘에는 우드카빙에 빠져서 실컷 나무를 깎고 와요. 얘기하고 보니 숲에서 저는 한시도 가만 있질 않네요.(웃음) 한때 지금의 올레 코스처럼 산길 지도를 만들려고, 방법을 찾다가 이내 깨달았죠. 제주의 웬만한 길은 다 포장도로이고, 그 길은 이미 지도에 나와 있다는 걸요. 저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산길은 거의 외웠어요. 외우기에 벅할 정도가 아니란 뜻이죠. 만약 지도 앱을 볼 때 산길인지 확인하려면 확대해보세요. 녹색 선이 보이는데, 아마도 '확인된' 임도 또는 등산로는 대부분 그렇게 표시될 거예요.



3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느낌

싱어송라이터 강아슬

강아슬은 숲에서 자랐다. 도시 외곽에 우거진 이름 없는 숲들을 뛰놀며 자라 나무처럼 단단한 곡을 쓴다. 숲의 고요가 그녀의 음악을 채우고 있다.



— 제주 도심에서 나고 자랐지요.

유년 시절 제주의 숲과 관련한 기억이 있나요?

숲과 가까운 제주시 외곽 동네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개발로 변화한 곳이 되었지만, 옛날 아라동은 나무와 꽃, 나비가 많고, 초록이 가득한 동네였어요. 집 밖에서 뛰노는 것을 좋아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네 친구들과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근처 숲에서 놀곤 했죠. 그래서 숲을 특별하게 느끼진 못했어요. 잡초에 발이 채여 고개를 들면 무성한 잎 사이로 하늘이 비치는 숲의 풍경이 제게는 너무 가깝고, 자연스러웠거든요. 어렸을 적 뛰놀던 숲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요. 사려니숲이나 비자림처럼 이름이 붙지 않은 숲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이름 없는 숲들이 유년을 채우고 있어요.

— 숲이 특별하게 다가온 건 언제부터인가요?

서울에서 살고부터일 거예요. 서울의 숲은 누군가 가꾸고 다듬은 흔적이 느껴지지만 제 기억 속 제주의 숲은 야생에 가까워요.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숲에 들어갈 때면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는 기분이 들죠. 제주에 갈 때마다 시간 내서 숲을 찾아요. 제주의 바다보다 숲을 좋아하고요.

— 숲의 무엇이 좋은가요?

숲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요. 나무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 특유의 습한 공기가 풍기는 냄새, 모두 다요. 숲길을 걷다 보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허무함이나 슬픔이 아닌 평화로움에서 비롯된 감정이예요. 너무 평화로워서,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 수 있다면 모든 게 관찮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숲을 걸을 때면 삶의 충만함을 느끼곤 해요.

— 숲이 주는 충만함이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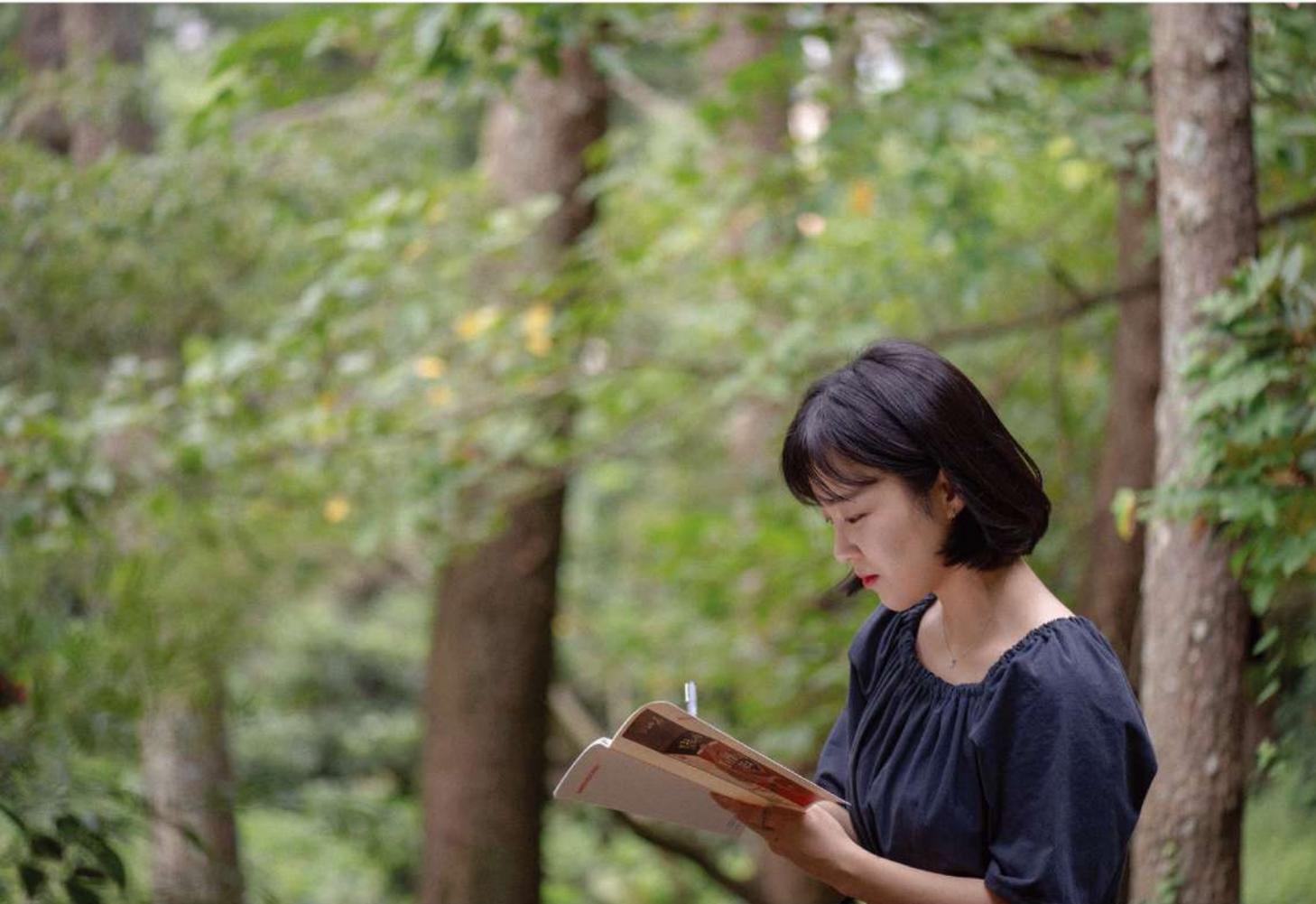
쉽게 절망하지 않는 단단함으로 모두에게 위로를 전하는 곡을 만들잖아요.

그렇 거예요. 숲을 거닐 때 하는 생각은 결국 좋은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숲이 주는 삶에 대한 충만감과 감사한 마음이 제 음악에도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명시적으로 숲을 노래한 곡은 없지만, 숲의 정서는 스미겠죠.

— 가장 좋아하는 숲이 있나요?

제주 사람인데 한라산 꼭대기에는 못 가봤어요. 한라산에 오르면 힘드냐는 지인들의 물음에 민망해져서 큰 결심을 하고 겨울 백록담 등산에 도전했는데, 역시 옆길로 새버렸죠. 그러다 사라오름에 도착했어요. 길 끝에서 만난 사라오름의 눈꽃은 생애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아 있어요. 덕분에 아직 백록담은 본 적이 없지만요.





고향 제주의 짙고 깊은 풍경을 동양화에 담아낸다. 육지에서 그리는 제주의 풍경. 그이에게 제주는 언제나 가고 싶고,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이다.

— 제주에서 나고 자란 화가가 제주의 풍경을 화폭에 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사실 제주에 살 땐 제주 풍경을 그리지 않았어요. 육지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며 제주 풍경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됐죠. 학부 때 제주 풍경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동기들이 제가 제주를 그린 것을 알아보고는 이국적이고 아름답다고 부러워했어요. 저에겐 익숙하고 당연한 풍경인 짙은 흙과 몇 그루의 야자나무, 무성한 풀, 돌담, 울창한 나무가 누군가에게는 아름답고 신기한 풍경임을 깨달았고 그것이 지금의 작업으로 이어졌죠. 항상 곁에 있어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한 마음을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에 빚대어 그리고 있어요.

— 제주 숲을 동양화로 표현하는 이유는요?

원시림 같은 제주 숲의 깊이를 표현하기엔 동양화 재료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질이 두껍고 질기며 지면에 윤기가 흐르는 '장지'라는 한지 위에 동양화 물감을 얹어요. 얇게 칠한 부분엔 장지의 결이 보이고, 붓이 여러 번 지나간 자리엔 초록의 깊이가 더해지죠. 물이 잘 스며드는 재질이라 물감을 머금은 특징을 이용하면 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공림, 장지에 채색 60×60cm, 2018

— 화폭에 담을 제주의 풍경은 어떻게 구상하나요?

제주에 가면 혼자 마음이 끌리는 장소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녀요. 그러다 인상적인 곳을 발견하면 그곳의 분위기나 떠오르는 이미지를 어떻게 담을지 머릿속으로 구상하고요. 제 그림이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실존하는 풍경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 시선과 기억에 남겨진 형상들이 재조합된 장면 그 자체를 화폭에 담는 것이죠.

— 캔버스를 분할하는 점도 흥미로워요.

전시를 위해 서울과 제주를 자주 오가는데, 큰 작품을 운송하기가 까다로워 분할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운송 편의를 위한 해결책이었죠.(웃음) 하지만 지금은 각 부분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방식이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분할하는 방식을 택해요. 전체를 본 후, 작은 부분에 시선을 옮기면 또 다른 감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연결점이 있어 다양한 분할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 제주 숲은 어떤 의미예요?

제 첫 작품이 '시골길'이에요. 조천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본 미로 같은 이미지로 나타냈죠.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와 조천에서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목장에 갈 때면, 햇볕이 쨍쨍한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한 그늘을 지나는 느낌이었어요. 어릴 땐 무서웠지만, 지금은 그때의 느낌을 받고 싶어 일부러 찾아가요. 키 큰 삼나무 기둥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그 너머의 너른 밭과 밤색의 흙길이 만든 풍경은 정말 아름다워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제주 숲만의 냄새와 분위기가 있어요. 그저 바라만 봐도 편안하죠.



위로, 장지에 채색, 130.2x130.2cm, 2017

5

숲속 마을에 안긴 사물의 공간
오브젝트 제주 선홍점

올봄 '오브젝트'가 입도했다는 소식은 심사관들을 들썩이게 한 도내의 화제였다. 그것도 조천읍 선홍리라니. 한라산과 오름의 능선이 겹쳐지고, 초록과 새소리가 사방을 에두른 그 마을에서 오브젝트 제주 선홍점 박창영 점장을 만났다.



— 셀렉트 숍 '오브젝트'가 서울, 대구, 부산에 이어 제주에 다섯 번째 매장을 열었어요. 어떻게 제주에 오게 됐나요?

오브젝트 설립 초기부터 제주 매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환경과 로컬과 친화적인 브랜드인 만큼 제주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구요. 오브젝트와 제주가 만나면 시너지가 생길 거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오브젝트 구성원 중 누가 제주에 내려가 현장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연결되다 보니 아이디어만 있던 터였죠. 저는 오브젝트에서 7년 정도 근무한 초기 구성원이고, 우연히 제주를 여행하고 한 달 살기를 경험한 후 제주살이를 결심했어요. 그렇게 서로 때가 잘 맞은 덕분에 오브젝트도, 저도 제주로 오게 됐죠.



— **오브젝트 제주 선홍점은 육지의 다른 오브젝트와 달리 숲에 스테이를 갖추고 있고.**

다른 곳도 아니고 제주에 매장을 여는 만큼 오브젝트로서는 다각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게스트하우스를 할까, 스테이를 할까 등등. 3개월 정도 부동산부터 '오일장 신문', 마을 주민들을 통해 매장 자리를 수소문하다가 이곳 선홍리의 창고를 발견했어요. 건물을 본 순간 바로 오브젝트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지금의 숲은 원래 창고용으로 지은 곳이라고요.**

네. 땅 주인이 주말에 농사지으려고 한 곳이라 창고 겸 쉼 공간으로 지은 곳이에요. 작년 겨울에 완공된 곳이라 오브젝트는 첫 입주자가 되었죠. 실은 오브젝트에는 매장만 빌려주려고 했다가 이야기가 잘되어 스테이까지 임대받았어요. 스테이는 계단을 빙 돌아 오르내리는 구조이고, 사방에 창이 있어 빛이 들 때 참 좋아요. 창으로는 온통 굴밭, 숲, 오름의 초록이거든요. 스테이 후기나 방명록에 창밖으로 새소리가 깨워주는 아침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선홍리가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다니는 여행자에겐 찾기 쉬운 여행지는 아니에요. 그 마을을 잘 알기에 이곳에서 편히, 오래 머물기를 바라면서 커피와 음료를 내게 됐어요. 마당에는 테이블 대신 평상을 놓아서 누울 수 있게 했고요. 제주 동백도 한 그루 어렵게 구해서 심었어요. 동백꽃 필 때 놀러 오세요.

— **많고 많은 마을 중 '선홍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일단 '마을'이어야 했어요. 오브젝트와 잘 어울리는 곳인가, 자연과 함께하는 브랜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가를 놓고 봤을 때 자연이 곁에 있는 장소로 걸론지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대표님이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죠.(웃음)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만한 곳이 아니고, 주변에 다른 건물이나 상점, 무언가가 딱히 없으니까요. 매장을 준비할 동안 제주의 숲과 스테이를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위치는 문제되지 않으리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이곳을 보자마자 바로 좋았거든요. 제가 느끼는 걸 (숲이나 스테이의) 손님들도 충분히 느끼고 공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 **숲이 가까이 있는 마을 선홍리에서의 삶은 어때요?**

어디를 가도 편안해요. 동백동산을 좋아하는데, 그곳과 가깝다는 것도 좋아요. 초록이 주변에 가득하니까 그로 얻는 편안함이 있어요. 우리가 숲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아, 이곳 좋다. 편하다 느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죠. 제주의 숲을 곁에 두고 살아보니 산책을 굳이 마음먹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하게 돼요. 자연 덕택에 얻는 기운은 앞으로로도 잘 써야겠죠. 제주 작가들, 로컬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오브젝트가 자연스럽게 마을에 동화되어 마을 사람들과 손님들을 잇는 일을 도모해보고 싶어요.



○

꽃자왈을 소유하는 완벽한 방법

Forest Sharing

잠시 '업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거친 돌 틈에 뿌리를 내린 거목과 검은 바위를 푸릇푸릇하게 덮은 이끼, 지루할 틈 없는 다채로운 식생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꽃자왈은 매력적인 땅이다. 우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주변 부지와는 땅의 규모가 다르다. 1만 평(약 33,000㎡)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위치가 마을 근처라면 땅 소유주 여럿과 교섭해야 하지만, 꽃자왈에서는 1만 평짜리 땅이 한 사람 소유인 경우도 있다. 땅 주인은 대체로 꽃자왈을 사겠다는 이를 반긴다. 꽃자왈은 오랫동안 바위만 많은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이다. 전체 꽃자왈 중 20%가 그렇게 사라졌다.

꽃자왈의 지질구조와 형성 원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송시태 박사는 우리가 꽃자왈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경관 이상이라 말한다. 용암이 굳어 생긴 바위가 부서져 지표층을 형성한 꽃자왈 지대의 지질은 맑고 깨끗한 제주 지하수의 비밀이다. 바위가 열기설기 쌓인 다공질 구조라 빗물을 무한정으로 수용한다. "꽃자왈이 없었다면 제주 사람들의 생명수인 용천수는 풍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주는 산사태가 없는데, 꽃자왈이 없다면 애기가 달라지죠." 꽃자왈을 개발한다는 것은 꽃자왈의 돌 틈에 하수관을 박고 그 위는 시멘트로 덮는다는 의미다. 땅속으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이 줄어드는 건 물론, 하수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지하수까지 오염될 수 있다.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꽃자왈의 고유한 생태계도 함께 사라진다. “꽃자왈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제주의 식물종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바위틈으로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열이 새어나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꽃자왈은 제주의 생물 다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꽃자왈을 사랑하는 일의 기쁨과 슬픔

200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된 꽃자왈 개발에 맞서 보호 운동이 시작됐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개인 소유의 꽃자왈을 사들여 개발을 막는 꽃자왈 공유화 운동이 대표적이다. 20세기 무렵 영국에서 시작된 '국민 신탁 운동 national trust'과 같은 방식으로, 제주에서는 사단법인 꽃자왈사람들*과 꽃자왈공유화재단이 기금을 마련해 꾸준히 꽃자왈을 매입하고 있다. 2014년과 2018년 각각 화순꽃자왈과 청수꽃자왈을 매입한 꽃자왈사람들은 현재 473,803㎡를, 교래꽃자왈을 필두로 5개 지역 꽃자왈을 관리 중인 꽃자왈공유화재단은 633,214㎡를 시민의 이름으로 보전하고 있다. 도 차원에서 보전 목적으로 매입하는 꽃자왈도 있다. 92.56~109.86km²로 추정되는 전체 꽃자왈 면적에 비하면 아직 미미하지만, '영원한 모두의 꽃자왈'을 위한 기초를 차근차근 닦아가는 중이다.

“꽃자왈을 만나며 느꼈던 기분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다. 우리가 사는 땅 제주에 이토록 소중한 생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과 보람이 적지 않았으나, 이미 곳곳에 아름다리나무가 베어지고 굴삭기가 숲을 갈아 골프장으로 만드는 것을 봐야 하는 아픔과 자괴감이 컸다.” 꽃자왈사람들이 펴낸 <제주, 꽃자왈>에서 꽃자왈을 사랑하는 일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절이다. 정말 그렇다. 꽃자왈의 신비에 경탄할수록 아프고 씁쓸한 일투성이다. 더 늦기 전에 아름다운 모두의 꽃자왈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면 '꽃자왈을 소유하는 완벽한 방법'에 동참해보면 어떨까.

*2005년 설립되어 올해로 15년 차를 맞는 꽃자왈 보호 단체. 자연환경국민신탁과 구성된 '꽃자왈포럼'에서 마련한 기금에 시민 모금을 더해 화순·청수꽃자왈을 매입했다.



꽃자왈공유화재단

꽃자왈 보호단체

교래·수산·상도·선흘·저지 등 5개 지역의 꽃자왈을 사들이며 보존 활동에 헌신한 꽃자왈지킴이들. 꽃자왈공유화재단의 정경아 사무국장이 전하는 꽃자왈 보호 이야기.



“꽃자왈공유화재단은 2007년 ‘꽃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시작으로 발족되었습니다. 현재 교래·수산·상도·선흘·저지 등 5개 지역의 꽃자왈을 사들였고, 회원들과 함께 보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0여 명의 정기 기부 회원을 두고 있고, 이니스프리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기부를 받아 꽃자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은 매해 기금을 모아 사유지 꽃자왈을 매입하는 꽃자왈 공유화 운동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개인 회원 외에도 랜딩엔터테인먼트, 제주개발공사, 농협 등 기관이나 단체의 기부를 받는데,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역시 2012년부터 꾸준히 공유화에 힘을 보태고 있어요. 올가을에는 이니스프리 임직원 꽃자왈 봉사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에요. 이처럼 관심을 보이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생태 교육 활동부터 교래자연휴양림에 위치한 꽃자왈생태체험관 운영, 꽃자왈 연구 조사, 꽃자왈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2015년부터는 교래자연휴양림에서 ‘꽃자왈 숲속 콘서트’를 열고 있어요. 올해 시작한 ‘그 곳에서 만난 사람’도 인기예요. 문경수 과학 탐험가,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현기영 소설가에 이어 10월에는 문소리 배우가 제주를 찾아 꽃자왈을 함께 걸을 예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꽃자왈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늘 고민합니다.”

이지영

환상숲꽃자왈공원
해설사

환상숲꽃자왈은 개인 소유지만,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꽃자왈 중 하나다. 숲을 돌보며 뇌경색을 이겨낸 아버지 이야기가 2017년 KBS <인간극장>에 소개되며 이지영 해설사까지 덩달아 유명해졌다. 꽃자왈의 생태를 입담 좋게 풀어내는 그녀는 8년 차 베테랑 숲 해설사다.



“꽃자왈에서 나고 자랐지만, 사실 저도 이곳이 왜 소중한지 잘 몰랐어요. 마을에 편의점이 생기면 좋아하고, 개발이 곧 발전이라 생각하던 사람이었죠. 생각이 변화가 생긴 건 뒤늦게 고향에 돌아와 해설사 교육을 받고 꽃자왈에 대해 알아가면서예요. 꽃자왈을 개발해 만든 영어교육도시와 제주신화월드가 동네 근처인데요. 어느 날 그 현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풍경이 너무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꽃자왈이 어떤 곳인지, 왜 지켜야 하는지 누군가는 계속 얘기해야겠구나, 생각했죠.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모르면 행동할 수 없잖아요. 저조차 그랬으니까요. 한 명이 해설을 듣더라도 제대로 이야기해주겠다고, 그게 꽃자왈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재는 꽃자왈을 물려받을 제주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인근 학교 학생들과 생태감수성 수업도 하고 있어요. 꽃자왈을 걸을 때 이 나무나 풀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궁금하다면 그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답해보세요. 그에 대한 모든 생명의 답은 ‘살기 위해서’예요. 해설할 때 이런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요. 용암 숲의 특징이나 지질학적 차이 같은 내용보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악착같이 살아가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거친 숲에서 버텨온 생명에 비하면 우리는 어쩌면 하찮은 존재일지도 몰라요. 꽃자왈을 밀어내는 개발을 쉽게 결정하는 건 그런 관점이 없기 때문이겠죠. 꽃자왈에 수많은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 알아도 꽃자왈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숨골

꽃자왈 공유화 운동
활성화를 위한
텀블벅 프로젝트 팀

펀딩 모금 총료가 꽤 남았지만, 벌써 목표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제주 꽃자왈을 알리고 공유화 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책자 <안녕, 꽃자왈> 제작을 위해 텀블벅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들은 ‘숨골’이다.



“제주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 모인 프로젝트 팀이에요. 제주 토박이 둘과 육지 출신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념품보다 먼저 꽃자왈 책자를 만들게 됐지만요. 시작은 그저 평범한 대화였어요. 토박이들이 꽃자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육지 친구들은 꽃자왈이라는 말을 모르더라고요. 제주 여행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에도 꽃자왈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는 데 주목해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가볍게 접근했지만 일면 알수록 꽃자왈 파괴가 심각해 무언가 해야겠다 싶었죠. 꽃자왈이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꽃자왈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꽃자왈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지키는 방법을 담아 책자를 만들기로 했죠. 대부분 사유지인 꽃자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유지로 만드는 ‘꽃자왈 공유화 운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꽃자왈과 공유화 운동을 소개하는 <안녕, 꽃자왈>은 10월부터 제주 곳곳에서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인스타그램 계정(@ssumgoal)에서 지켜봐주세요. 텀블벅을 준비하는 동안 꽃자왈공유화재단 관계자부터 오일장에서 만난 아주머니까지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는데, 프로젝트에 진척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들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너희가 꽃자왈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고마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변화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니까요.”

꽃자왈 러너스 가이드

신비의 숲 꽃자왈을 즐기는 동시에 아끼고 보호하는 요즘 트레커의 선택. 숲과 바다를 넘나드는 올레 코스의 꽃자왈 구간부터 한라산 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피엘라벤 클래식' 등 제주의 숲길 러너스를 위한 정보를 모았다.

올레길에서 만난 제주의 숨골, 꽃자왈 트레킹

● **올레 11코스 무릉꽃자왈**
신평리와 무릉리 사이에 있는 꽃자왈로, 제주올레에 의해 처음 알려진 '비밀의 숲'이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우거지고, 겨울에는 소복하게 쌓인 눈으로 아름다운 설경을 선사한다. 계절에 따라 100가지 향이 난다는 꽃 '백서향'을 볼 수 있다.

● **올레 14-1코스 저지꽃자왈**
마치 잘 정리된 정원과 같은 분위기가 흐른다. 그리고 숲 깊숙이 들어가면 밖에서 보던 것이 싹 잊혀질 만큼 강렬한 풍경으로 반전 매력을 안겨준다. 꽃자왈이 품고 있는 숲의 생명력이 온몸을 휘감는다.



11코스 꽃자왈 ©이혜선



14-1코스 꽃자왈

세계의 열정 트레커가 사랑하는 한라산

2005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덴마크, 미국, 홍콩에서 매년 진행한 트레킹 대회 '피엘라벤 클래식'이 올해 한라산에서 열린다. 환경 단체의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루트의 환경오염을 막는 등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참가자는 야영 장비를 포함한 모든 짐을 본인이 직접 메고 등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10월 9~12일 동안 참가자 400명은 2개 그룹으로 나뉘어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한 60km 구간을 2박 3일간 걷는다. 스타트와 피니시를 포함한 모든 체크포인트에서 트레킹패스에 스탬프를 찍고, 누락된 경우 완주 메달을 받을 수 없다. 트레일 도중과 체크포인트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실격 처리는 물론 공원관리공단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참고로 모든 참가자에게는 세탁 후 재활용할 수 있는 트레이시 백을 제공한다.



DAY1

● **어리목 탐방로**
한라산국립공원 탐방 안내소(해발 970m)를 시작으로, 어리목계곡-사제비동산-만세동산-윗세오름 대피소-남벽순환로-남벽분기점까지 이어진다. 백록담 남쪽 화구벽과 한라산을 감상할 포인트.

● **윗세오름 대피소**
1일 차 체크포인트.

● **돈내코 탐방로**
남벽분기점-평귀대피소-돈내코 탐방 안내소(해발 500m)를 잇는 7km.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등 상록활엽수림과 단풍나무 등 낙엽활엽수림, 구상나무, 시로미 등 현대수림이 수직으로 분포한다.

DAY2

● **동백길**
돈내코 탐방로에서 무오법정사에 이르는 13.5km 구간. 항일운동 성지였던 무오법정사, 4·3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주둔소, 동백나무와 편백나무 군락지, 강정천이 있다. 2일 차 체크포인트는 동백길 중간에 있다.

● **하원마을 캠핑장**
무오법정사에서 1km를 내려오면 나온다. 한층 자연에 가까운 느낌으로 밤을 보낼 수 있다.

DAY3

● **서귀포자연휴양림**
한라산국립공원 내 천연휴양림. 편백림을 비롯해 다양한 산림욕장이 있다.

● **천이숲길**
단풍의 진풍경을 경험할 기회. 한라산둘레길 중 가장 높은 1,000m 고지를 통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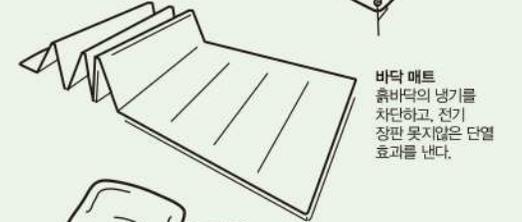
참고 (사)제주올레 www.jejuolles.org | 피엘라벤코리아 www.pillabencor.com

숨을 생각하는 미니멀 캠핑의 시려 깊은 물건들



돔 텐트
지름 2~3m의 텐트는 2~4인용으로 알맞다.

방수포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결로)를 막고, 벌레나 이물질로 인한 오염을 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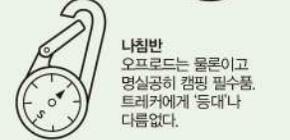
바닥 매트
흙바닥의 냉기를 차단하고, 천기장판 못지않은 단열 효과를 낸다.



식기
스테인리스 또는 티타늄 재질이 좋으나, 자신에게 맞는 가벼운 것으로 갖출 것

참낭
사계절용 면 혼방, 폴리 재질의 방수 기능을 갖춘 사계절 참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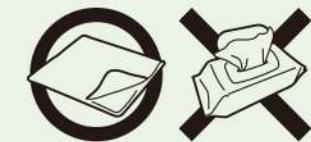
헤드랜턴
해가 부쩍 빨리 지는 숲길에선 랜턴이 매우 중요하다. 트레킹 중 해본 이들은 으레 2개를 챙긴다. 요즘 대세는 목걸이형.



나침반
오프로드는 물론이고 명실공히 캠핑 필수품. 트레커에게 '등대'나 다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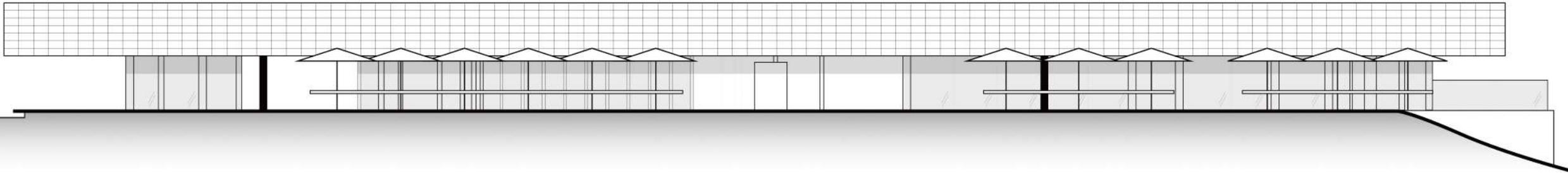
응급 키트
응급약, 상비약, 체온계를 갖춘 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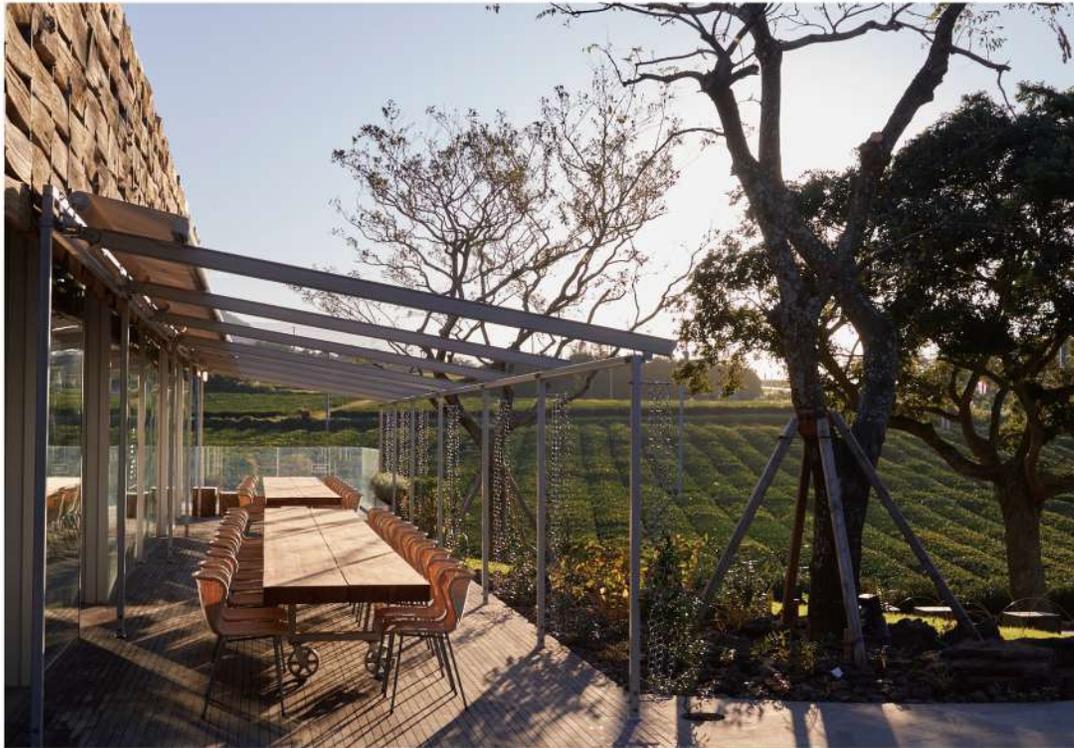
핸드 타월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은 '피엘라벤'은 물론, 자연에 머무는 트레커에게 '물티슈' 사용 금지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손수건 크기의 타월 여러 장을 준비할 것.

Organic Architecture

계절 식물과 자생 군락, 현무암과 화산석 등 제주의 아이콘을 실내로 들여 생기롭고 편안한 심터를 조성했을 뿐 아니라 청정 섬의 원료로 만든 화장품과 자연을 모티브로 한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을 곳곳에 놓았다. 이니스프리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와 제주 자연, 그리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이곳, 자연과 하나된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 증축동 'EAST동'이다.



*제주 원료로 만든 화장품과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가 2019년 9월, 자연 속에서 더욱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증축동(EAST동)을 개관했다.



Interview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 새 공간을
건축한 조민석 소장과의 인터뷰

— 최근 증축한 EAST동에 스마트팜을 들었죠.

스마트팜을 통해 온실처럼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사람들이 쾌적하게 머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직사광선의 과다 유입을 막고, 확산광을 만드는 톱날 천창으로 공간에 시원한 개방감을 주었죠. 적극적으로 빛을 받아 실내에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끔 했어요. 또 현무암 석재 바닥으로 재배를 돕고, 식재가 가능하도록 바닥에 흠을 담았습니다.

— WEST동(본동)과 EAST동(증축동)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2013년 완공한 이니스프리 WEST동은 숲의 경험을 건물 내부로 불러들였습니다. 목재와 현무암으로 건물 내외부를 구성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죠. EAST동을 설계할 때 염두에 둔 것은 제주하우스를 찾는 수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떨어진 낯선 건축물이 아닌, 마치 하나의 생물체처럼 WEST동을 연장하고 연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존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내부 건축 요소를 변주해 스마트팜과 같은 새 공간을 연출한 것이죠. 또 WEST동을 이어 동쪽으로 펼쳐진 서광다원의 녹차밭에 성큼 다가가는 느낌을 의도했습니다.

— WEST동과 EAST동은 어떤 방식으로 연결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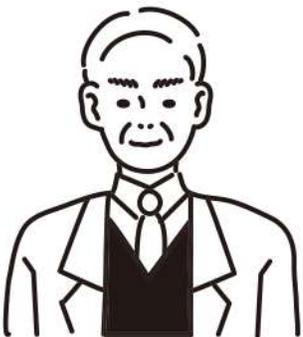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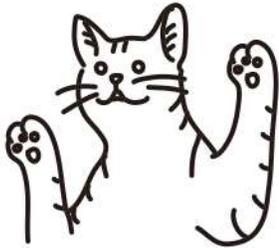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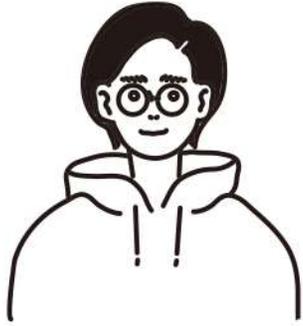
기존 건물의 너와 부분을 증축 건물에 연결해 디자인했습니다. 건물 사이에 1.4m 간격을 두고, 그 틈에 수생식물이 있는 연못과 돌 벤치를 두었습니다. 기둥을 세워 만든 필로티 공간 안으로는 하늘과 주변 풍경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WEST동과 EAST동은 선형 연못과 반외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물리적으로 분리했지만, 유리 벽을 통해 공간이 서로 마주한 구조입니다. 두 동이 반대 방향으로 쭉 뻗어 있어 서쪽의 깊고 은밀한 숲과 동쪽의 질푸른 녹차밭을 담는 '시선의 통로'를 이룹니다.

—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하나요?

자연 속에 자리한 건물인 만큼 홀로 돋보이기보다 풍경에 녹아들 수 있도록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 역시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에서 제주 자연을 만끽하며 휴식하기를 바랍니다. 건물 북쪽에는 꽃지알, 동쪽에는 녹차밭, 남쪽에는 팽나무와 잔디밭이 펼쳐지거든요.



사진: 나안



그린 생활 백서

제주에 살거나 살고 싶거나, 누구나 맘속에 제주 하나쯤은 있는 거니까. 푸른 섬을 오래도록 푸르게 지키기 위한 그린 라이프의 고수들의 친환경 생활 수칙 14.

환상꽃자왈 해설사 이지영

평소 음식을 만들 때 제주산 로컬 푸드를 선택해요.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지역 농민들이 더 큰 자생력을 갖추면 제주의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채소는 텃밭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일회용기에 담긴 식재료를 사는 일은 드물어요.

사진작가 이다솔

오래된 습관 중 하나인데, 일회용 페트병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물을 사 먹지 않아요. 찻잎을 넣고 수돗물을 끓여 마시고, 외출할 때는 물병에 물을 담아 가죠.

배우 겸 작가 윤진서

꽃보다 쓰레기를 (손에) 들어요. 숲이나 바다에 드나들 때마다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서 한 바구니씩 담으려고 해요. 이제 저의 눈에는 꽃을 든 남자나 여자보다는 쓰레기를 든 사람들이 훨씬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브젝트 제주 선출점 박창영 점장

제주에 살면서 달라진 점이 있어요. 살고 있는 마을에선 '분리수거 도움센터'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곳에 계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분리수거를 다시 배웠어요. 그 덕분에 페트병의 라벨 떼거나 병뚜껑 분리 등을 지키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이 정도로, 아니 '정석'대로 분리수거해야 한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포슬린 피겨 아티스트 모습

숲에서 나는 자연의 소리보다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누군가와 함께 걷거나 담소를 나누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소리가 커지는데, 그럴 때 숲이 거부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조용히 머물다 오려고 하고, 이를 꼭 지키려고 해요.

포토그래퍼 원영재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기본적인 실천은 물론입니다. 하루에 한 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데, 외출할 때는 플라스틱 컵을 쓰지 않기 위해 텀블러를 갖고 다녀요. 텀블러에 음료를 담으면 빨대를 쓰지 않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포토그래퍼 조남홍

반려견 소액이와 산책 갈 때 챙겨 다니는 배변 봉투에 바다나 숲에 버려진 쓰레기를 담아 옵니다. 걷다 보면 쓰레기를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펍에서는 쓰레기를 한 봉지 담아 오는 손님에게 맥주 한 잔을 무료로 내기도 해요. 바닷속 산호를 보호하기 위해 서핑할 때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요.

화가 양화선

야외 활동 시 최소한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려 노력하고, 항상 에코 백을 들고 다닙니다. 산에 갈 때는 음료를 보온병에 담아 가고,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와서 버립니다.

포토그래퍼 김병준

사진 촬영을 위해 꽃자왈, 숲, 오름 등 깊은 자연을 다니면서 그동안 지켜온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잘 남아있으면 하는 바람이 커졌어요. 그래서 촬영의 철칙을 세웠는데, 공식적으로 길이 난 곳 외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촬영 후 돌아올 땐 쓰레기를 줍습니다. 꽃자왈이나 숲에서 줍는 쓰레기의 양은 정말 이걸 다 사람들이 버렸나 싶을 정도로 많아요.

빼꼼라쿠치나 오너 세프 신혜원, 강길수

숲 피크닉을 갈 때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 짐을 많이 챙겨 가는 편이에요. 텀블러에 차를 담고, 그릇과 식기, 컵은 평소에 쓰던 걸 가져갑니다. 멀티슈로 앉을 자리를 닦는 대신 풀밭에 깔고 앉을 패브릭을 여러 장 챙기는 식이에요.

<안녕, 꽃자왈> 발행인 '숨골' 오영선

텀블러를 들고 다닐 땐 전용 '드링크 백'을 들어요. 테이크아웃 음료는 플라스틱 컵에 종이 출다까지 끼워주잖아요. 이걸 안 쓰는 방법을 궁리하다가 전용 가방을 쓰게 됐어요. 드링크 백은 유리잔이나 텀블러를 쓸 때도 유용합니다.

촬영감독 김동연

텀블러죄 일상에서 실천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한편으론 번거로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습관을 들이면 알게 돼요. 카페나 식당 등 자주 다니는 곳에서 한 사람이 만드는 일회용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름요.

화가 김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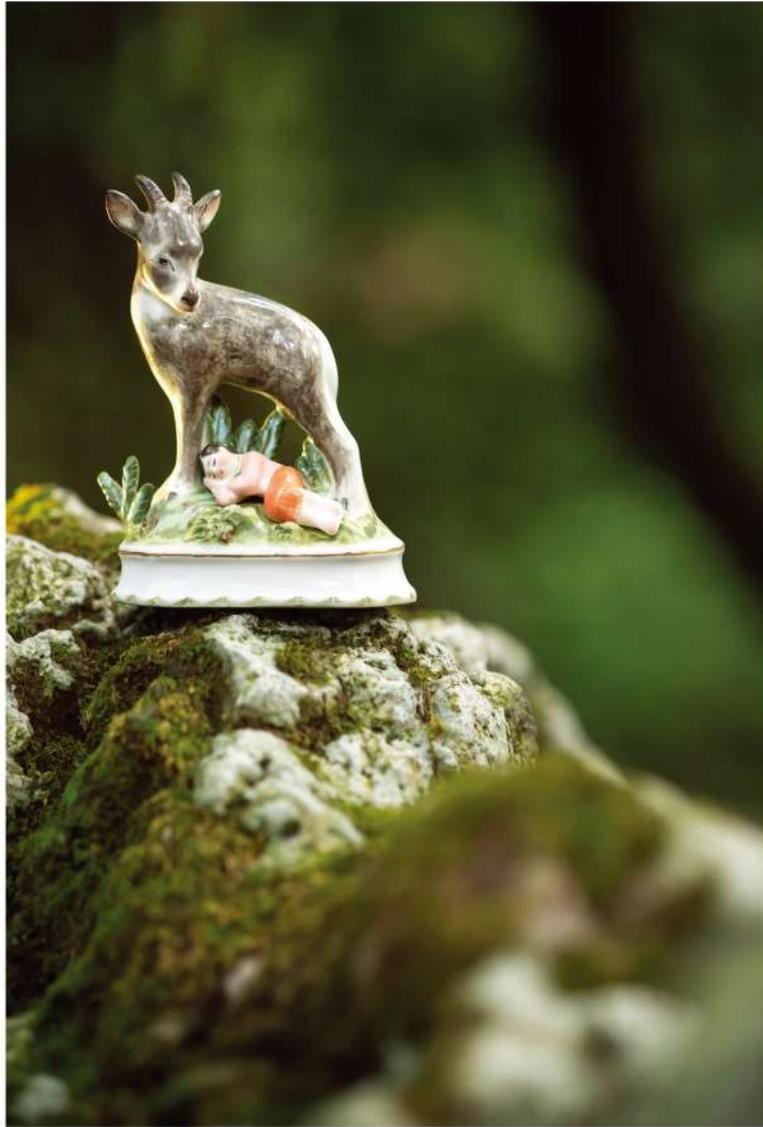
특별한 수칙은 없지만, 숲이 있던 모습 그대로를 감상하고 흔적 없이 다녀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쓰레기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거둬서 돌아오고요.

포토그래퍼 안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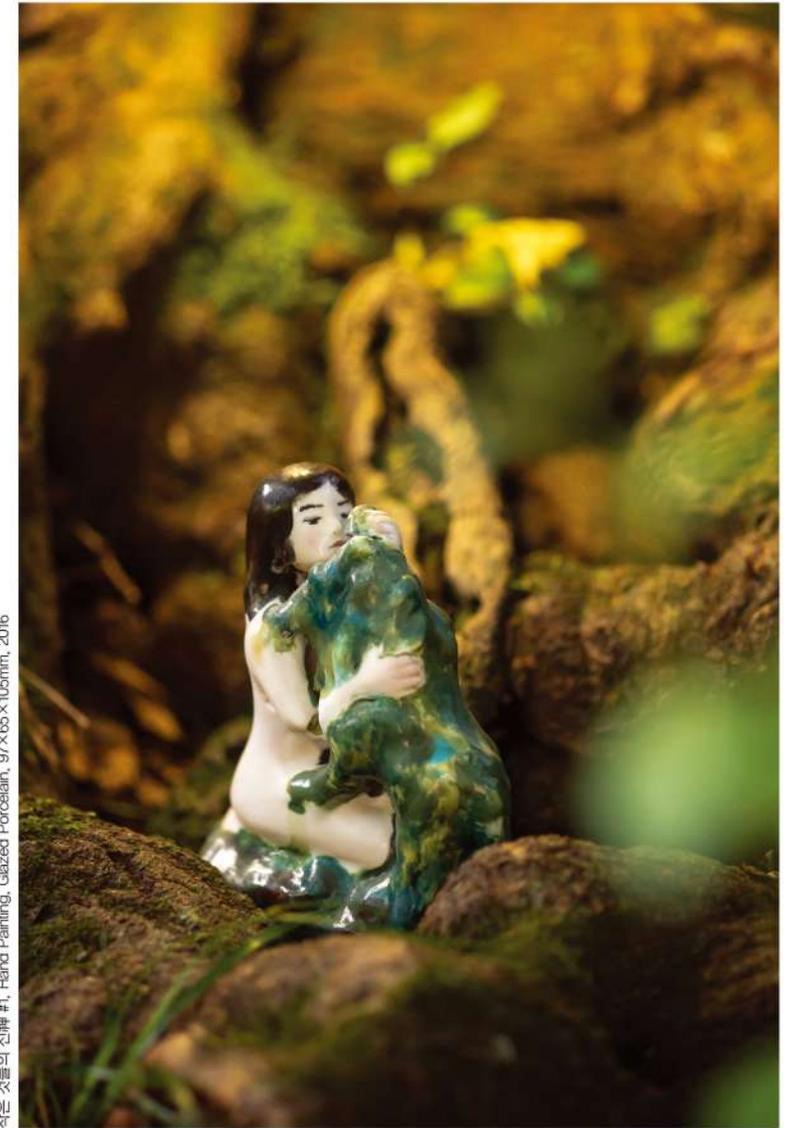
꽃자왈을 촬영하거나 숲을 걸을 때 나뭇가지나 이파리를 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만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체온이 나무에게는 엄청 뜨거운 열이라서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들은 후로는 반드시 지킵니다. 삼각대를 써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삼각대 다리 끝부분을 천으로 감싸요. 뾰족한 다리가 흙을 파헤칠 수 있기거든요.

꽃자왈 모습, 꽃자왈 살롱

여기 와서 이것 좀 보라고, 작고 여린 것이 손짓한다.



신앙, Hand Painting, Glazed Porcelain, Liquid Gold, 85×50×118mm, 2016



작은 것들의 신비 #1, Hand Painting, Glazed Porcelain, 97×65×105mm, 2016



죽채비야, 친남성, Hand Painting, Glazed Porcelain, Liquid Gold, 65x70x105mm, 2019



Artist's Note

The Small Image for Small Th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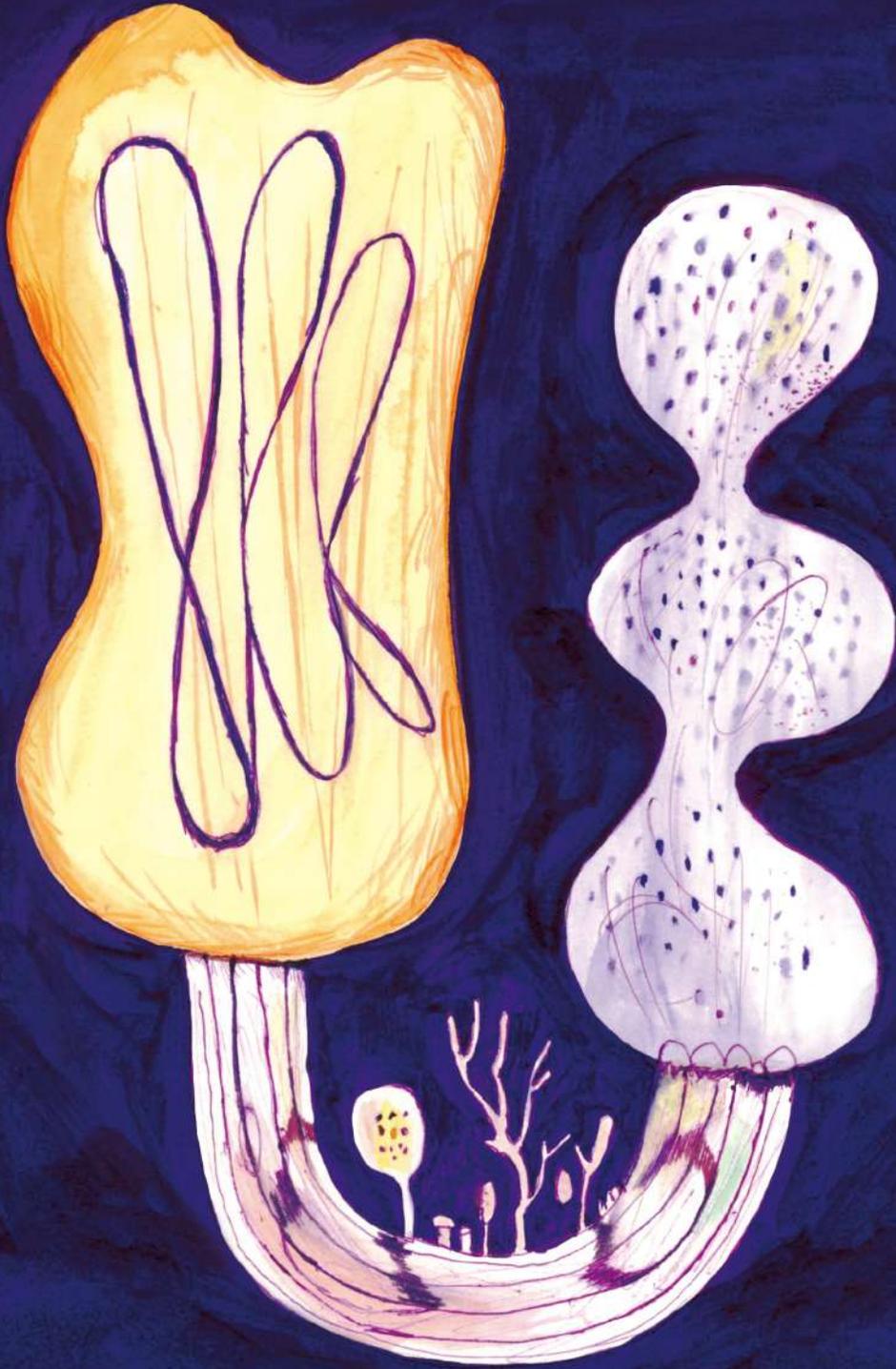
먼 숲에서 불어오는 열은 바람이 제주 동쪽 중산간 마을 선흘리에 닿았다. 그 바람은 다시 물과 불과 흙이 되어 자그마한 덩어리를 만든다. 그 덩어리는 몽글대는 수풀이 되고, 너른 초원 위를 뛰노는 산양이며 노루가 된다. 손에 꼭 감기는 작고 귀여운 모양새에 배시시 웃음 짓겠지만, 그 작고 여린 것이 물 꼬러미 보고 서 있는 몸짓에 어쩐지 겸연쩍어 고개를 떨구게 된다. 어스름한 저녁에 들면, '모습moseub'은 숲 마실에 나선다. 세찬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내려도 숲에만 들어서면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적막하다. 멀건 안개를 헤집고 숲 한가운데에 들어선다. 나뭇대는 반딧불이가 노란 꿈무늬를 빼며 나뭇가지에 가 앉고, 만발치에서 거친 울음을 내지르는 노루를 보며, 숲의 정령으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할 곳에 발 디뎠음을 깨닫는다. '낮도 모자라 감히 밤에도 여길 침범하려 들다니', 숲에서 불호령이 떨어지면 미안한 마음 가득 안고 부리나케 나와야 한다. 모습에게 숲은 몸으로 느끼는 어떤 존재다. 오름의 등성이가 모인 중산간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람이 아닌 생명체를 더 자주 접하게 된다. 그렇게 그들에게 눈길이 닿았고, 모습은 '작은 것들을 위한 작은 이미지The Small Image for Small Things'를 빚었다. 작고 약한 것이라 치부하고, 무시당하는 숲의 수많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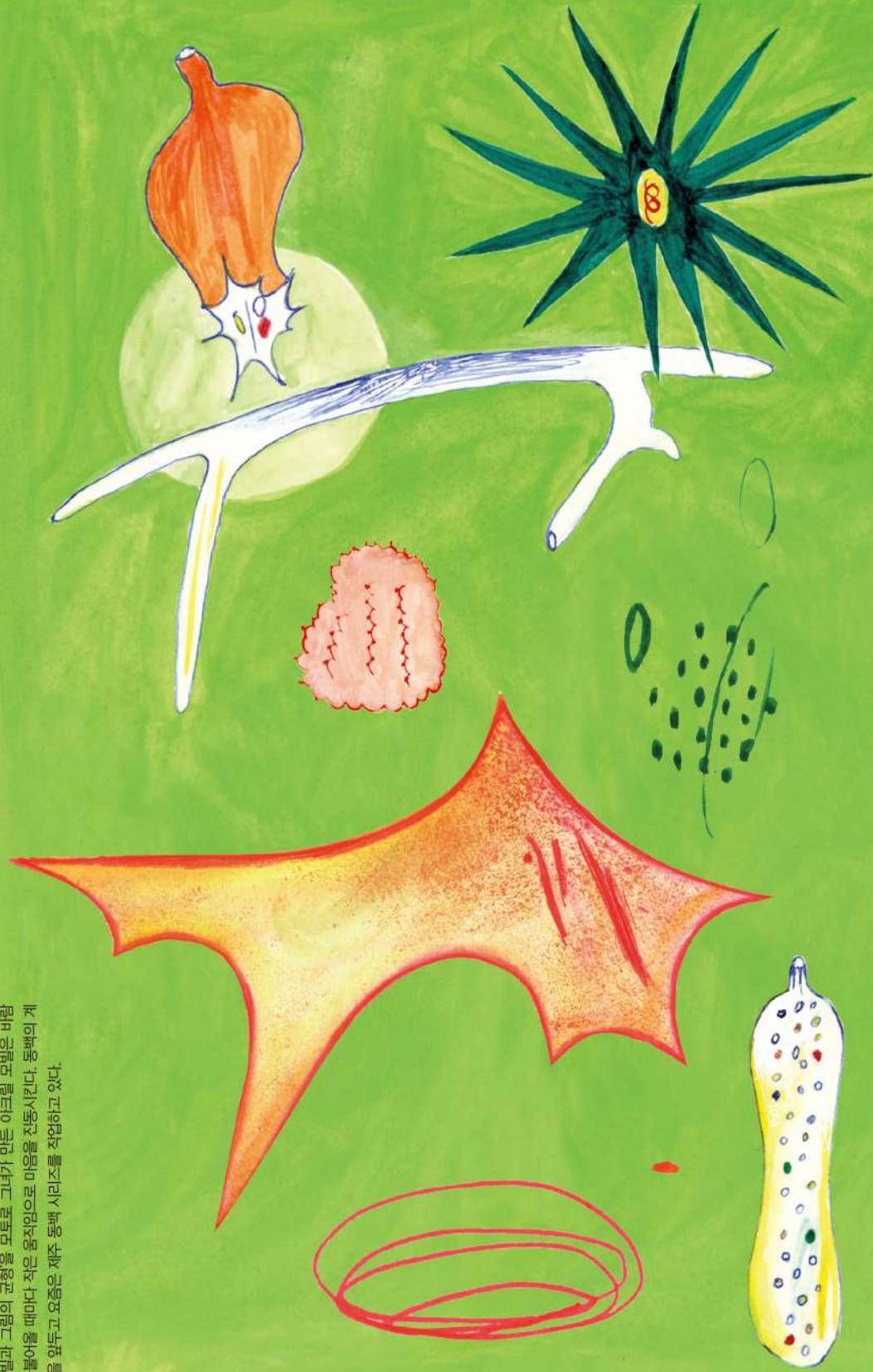
최선경과 이승민은 선흘리에서 공방 겸 작업실 모습공방을 운영한다. 모습은 세상의 '작은 것들을 위한 작은 이미지'를 통해 자연과 생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

숲에 부는 어린 바람

모빌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 오시영. 깊고 푸른 꽃지왈에서 그이가 마주한 고사리, 나뭇가지, 열매, 작은 돌멩이가 놓인 소소한 풍경과 스쳐 간 바람의 여운.



'모빌'과 그림의 균형'을 모토로 그녀가 만든 아크릴 모빌은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작은 움직임으로 마음을 진동시킨다. 동백의 계절을 앞두고 요즘은 제주 동백 시리즈를 작업하고 있다.



(주)이니스프리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한강로2가)

전화 080-380-0114

🌐 www.innisfree.com

📘 www.facebook.com/innisfreeHQ

📺 www.youtube.com/ecoinnisfree11

📷 @innisfreeofficial

copyright ©2019 (주)이니스프리

발행인 김영목

제작 이니스프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기획·편집·디자인 콘텐츠그룹 제주상회 www.iiinjeju.com

표지 원영재



innisfree

